

碩 士 學 位 論 文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전쟁체험과
家族의 피해의식 연구

- 상실의 문제를 중심으로 -

2005 年

漢城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 學科

國 文 學 專攻

李 文 愛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李 正 淑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전쟁체험과
家族의 피해의식 연구

- 상실의 문제를 중심으로 -

Harm Consciousness Study of War Experi-
ence and family in Park Wan Seo's Novel

- in view of lost a question -

2005年 6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 學科

國 文 學 專攻

李 文 愛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李 正 淑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전쟁체험과
家族의 피해의식 연구

- 상실의 문제를 중심으로 -

Harm Consciousness Study of War Experi-
ence and family in Park Wan Seo's Novel

- in view of lost a question -

위 論文을 文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5年 6月 日

漢城大學校 大學院

國語國文 學科

國 文 學 專攻

李 文 愛

李文愛의 文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5 年 6月 日

審査 委員長 (인)

審査 委員 (인)

審査 委員 (인)

目 次

I. 서 론	1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2 연구사 검토	4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8
II. 체험의 소설화를 통한 개인과 가족의 피해양상	11
1 체험의 소설화	12
2 내면세계의 파괴와 상실	23
3 가족 붕괴와 단절	34
III. 사회적 차원으로의 분단문제 형상화	44
1 분단으로 인한 피해의식	45
2 사회모순과 병폐로 인한 이중심리	49
3 진실 은폐에 대한 현실풍자	55

IV. 정신적 외상의 치유방식.....	63
1 기억의 서사화를 통한 극복.....	68
2 상처를 치유하는 글쓰기.....	71
 V. 결 론.....	78
 ■ 참고문헌.....	83
 ■ ABSIRACT.....	90

I. 서론

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생긴 분단국들 중에서 우리 나라만이 최후의 분단국으로 남아 있다. 분단 상황과 동족간에 일어난 여러 문제점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남북관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시점에서 분단의 단초가 되었던 6·25의 체험을 반추해 보는 것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6·25전쟁이 여전히 진행중인 우리 민족의 커다란 정신적 상처로서 여러 작가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형상화되어 왔는데, 박완서의 경우 6·25를 체험하면서 전쟁과 가족의 문제를 다룬 소설들을 통해 그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독자적이다.

박완서는 1970년 『나목』이 『여성동아』의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되면서 문단에 등단하였다. 등단 이후 현재까지 열네 편의 장편소설과 백여 편의 중·단편소설을 발표하였고 그 외에도 여러 산문집을 출간하였다. 작가 생활을 시작한 이래 삼십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는 이야기(소설)가 가지는 ‘만병통치약으로서의 효능’을 믿는 우리 시대의 진정한 이야기꾼으로서 왕성한 창작 활동을 해왔으며, 지금도 꾸준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내가 어렸을 적에, 어머니는 참으로 뛰어난 이야기꾼이셨다. (중략) 어머니는 무궁무진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을 뿐더러 이야기의 효능까지도 무궁무진할 걸로 믿으셨던 것 같다. 왜냐하면 내가 심심해 할 때 뿐 만 아니라, 주전부리를 하고 싶어 할 때도, 남과 같이 고운 옷을 입고 싶어 할 때도, 약아 빠진 서울 아이들한테 놀림 받아 자존심이 다쳤을 때도, 고향 친구가 그리워 외로움을 탈 때도, 시험점수를 못 받아 기가 죽었을 때도, (중략) 재미있는 이야기로 나의 아

품을 달래려 드셨다. 어머니가 당신 이야기에 효능을 거신 건 그만큼 자신이 있었다기보다는 이야기밖에 가진 게 없었기 때문에 딸의 모든 상처에 그것을 만병통치약처럼 들이댈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싶기도 하다. …… (중략) …… 내가 아직도 소설을 위한 권위 있고 엄숙한 정의를 못 얻어 가진 것도 “소설은 이야기다.” 라는 단순하고 소박한 생각이 뿌리 깊기 때문일지도 모르겠다. 뛰어난 이야기꾼이고 싶다. 남이야 소설에도 효능이 있다는 걸 의심하건 비웃건 나는 나의 이야기에 옛날 우리 어머니가 당신의 이야기에 거셨던 것 같은 다양한 효능의 꿈을 걸겠다.¹⁾

박완서가 마흔이라는 비교적 늦은 나이에 글쓰기를 시작한 동기는 작가가 항상 하고 싶었던 ‘말하고 싶은 욕구’ 때문이었다. 그렇게 시작된 글쓰기는 내면에 묻어 두었던 상처를 드러내고, 반복적인 상처 드러내기를 통해서 아물지도 않고 묻어 두었던 한국전쟁의 상흔을 문학적으로 형상화하면서 치유해 왔다. 이렇게 그의 문학은 전쟁과 분단으로 고통받았던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고 있다. 그는 『나목』 (1976), 『목마른 계절』 (1978), 『엄마의 말뚝』 (1982),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1983)와 같은 작품들에서 자신의 전쟁체험을 다루어 오고 있다.

작가는 6·25를 겪은 세대로 전쟁이 자신에게 있어서 평생 잊을 수 없을 만큼 참혹한 아픔의 기억으로 남아 있다. 자신의 체험들을 오로지 기억을 통해 풀어내면서 치유해가는 과정인 자전적인 문학으로 끊임없이 담아내고 있다. 이것은 전쟁으로 인한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고 여전히 작가의 의식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그의 체험은 기억을 통해 재구성하고 있다. 그것은 전쟁체험과 오빠의 죽음이라는 기억이 상처로 살아남아 가족의 고통으로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오빠가 죽은 후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무게로 남겨진 가족들의 삶을 짓눌러 왔다. 그의 작품에서 70년대는 『나

1) 박완서, 「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 『박완서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2, pp. 143~144.

목』으로 상처 드러내기를 하고 있으며, 80년대의 『엄마의 말뚝』으로
 는 공통의 상처를 함께 대면하면서 상처를 치유하고, 90년대는 아들의
 죽음을 계기로 이제는 삶과 죽음을 모두 포용할 수 있는 성숙한 글쓰기
 로 나아가고 있다. 고통이나 상처의 삶을 글 쓰는 작업을 통해 의미화
 하는 것은, 내면의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정이며 방법인 것이다. 오빠
 의 죽음으로 젊음과 청춘을 빼앗긴 나, 그리고 전쟁통에 아들을 잃은
 슬픔을 안고 사는 어머니의 가슴에 말뚝처럼 한이 맺힌다. 이처럼 박완
 서는 한을 통해 상처와 슬픔을 삭혀가는 여러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된
 글쓰기의 자세로 나아가게 된다. 상처를 내면화해 가면서 자기구제로써
 의 글쓰기는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삼킨 죽음을 토해내는 곡성을 통
 해 비로소 자신을 힘겹게 한 세계와 화해하면서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고통이나 상처의 삶을 글쓰기라는 작업을 통해 의미화 하는 것은 내밀
 한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힘이 되는데 이는 상처를 치유해 나가는 과
 정이며 방법인 것이다. 이처럼 박완서가 소설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
 는 그가 겪었던 6·25체험을 증언하기 위한 것으로 문학의 출발인 소설
 가가 되는 데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이야기꾼인 어머니의 전통을 이
 어받아 ‘소설은 이야기’라는 신념을 갖게 되고 이야기꾼인 어머니가 이
 이야기에 만능의 효능을 걸었던 것처럼 작가 박완서도 자신이 겪었던
 6·25체험과 오빠의 죽음이라는 어머니와 자신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여
 자신의 고통과 상처를 이야기라는 만병통치약으로써 치유하고자 하였
 다.

이에 본고는 6·25를 역사적 배경으로 한 작품들을 중심으로, 전쟁의
 상흔과 정신적 외상에 따른 상처치유와 자기구제로서의 글 쓰는 과정이
 박완서의 다양한 작품들 속에 어떻게 형상화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2. 연구사 검토

박완서 소설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이 작가가 다작의 작가인 만큼 등단 때부터 서평이나 논평들을 중심으로 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받아왔으며, 90년대 이후 학위 논문을 비롯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그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작가론이나 작품세계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작가의 자전적 체험을 소설화한 것에 대한 선행 연구는 작가의 전쟁 체험의 문제와 관련지어 긍정적인 평가와 부정적인 평가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유종호는 『나목』이 전쟁의 중압감과 오빠의 죽음으로 인한 상처와, 어머니에 대한 적의 등으로부터 탈출하고자 하는 주인공 경아의 심리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고 「카메라와 위카」를 『나목』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는 작품으로 본다.²⁾

이경훈은 「엄마의 말뚝 2」의 분석을 통해 가부장적 질서에서 소외된 딸과 여동생이 박완서 전쟁 체험 문학의 주체라고 보고 말뚝은 가장인 남성이 없는 집을 만들어 내는 비극의 문제성을 부각시킨다고 보고 있다.³⁾

정호웅은 「상처의 두 가지 치유방식」에서 박완서의 작품들이 전쟁 체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나, 전쟁의 원인과 분단 상황의 원인에 대한 심도 있는 성찰은 보여주지 못한다고 주장한다.⁴⁾

김윤식은 박완서의 작품을 두고 자기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처럼 쓴 작가라고 하면서 전쟁 당시의 상황을 ‘기억과 묘사’로 잘 그려내고 있다

2) 유종호, 『동시대의 시와 질서』, 민음사, 1982, pp. 350~362.

3) 이경훈, 「작가의 전쟁 체험 문학의 핵심적 구조」, 『문학사상』 3월호, 1996, pp. 264~273.

4) 정호웅, 「상처의 두 가지 치유방식」, 『작가세계』, 1991년 여름호, p. 85

고 설명한다. 아울러 작가의 삶에 깊이와 체험이 부드럽고 정확한 문체를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하여 흔히 흠이 없는 ‘천의무봉’(天衣無縫)의 경계라고 격찬⁵⁾하면서 이를 대중성의 근거라고 제시하고 있다.⁶⁾

작가의 문자행위가 자신의 한풀이와 상처치유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일 수는 없다. 6·25로 인한 상처는 우리민족 대부분이 지닌 것이므로 작가는 경험의 직접성을 넘어 객관성을 가지고 대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박완서의 이러한 계열 작품은 주관적이라는 한계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6·25전쟁과 분단을 다루면서 그로 인한 상처와 피해의식을 다룬 소설에는 김교선, 김윤식, 황광수, 백낙청, 성민엽, 김경연의 평가를 들 수 있다.⁷⁾ 이 논의들은 박완서가 자신의 체험을 기초로 작품을 형상화한 것에는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지만 지극히 한 개인의 체험에만 머물러 있는 한계로 인해 역사적 안목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김교선은 박완서 작품의 주인공들이 한결같이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조건에서 느껴지는 권태와 지겨움에서 벗어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홍성원의 발상법이 지적이나 해석적인 성격이 농후한 것임에 반해 박완서의 경우는 감각적이나 정서적 직감에 의한 발상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가 제시한 문제의식도 충분한 호소력을 지니게 되었다. 김윤식은 6·25를 형상화한 소설에서 박완서의 탁월한 기억력이 발휘된 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나 방법론이 부재한 작가라는 견해

5) 김윤식, 『김윤식 산문 평론집』, 문학동네, 1999, p. 33

6) 김윤식, 「천의무봉과 대중성의 근거」, 『문학사상』 1월호, 1988, pp. 143~162.

7) 김교선, 「호소력의 문제」, 『창작과 비평』 여름호, 1976, pp. 312~318.

김윤식, 『80년대 우리 문학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1989, p. 25.

_____, 『낮선 신을 찾아서』, 일지사, 1998, p. 267.

황광수, 「민족문제의 개인주의적 굴절」, 『창작과 비평』, 1985, 10.

백낙청, 『분단문제와 한국사회』, 까치, 1985, pp. 379~386.

성민엽, 「박완서의 추구」, 『고통의 언어, 삶의 언어』, 한마당, 1986.

김경연,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세계」, 『여성』 2집, 창작사, 1989, p. 18

를 보이고 있다. 황광수는 박완서가 6·25와 관련된 사회문제에 대한 비판에는 성공을 거두고 있으나 민족문제를 개인적 차원으로 다룬 점은 역사적 시각이 결여되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백낙청은 『창작과 비평』을 처음 열은 문학인으로써 분단의 실마리를 찾고자 노력하였다.

이경식은 박완서의 작품세계는 6·25로 인한 분단의 피해의식을 극복하는 것으로 설명하면서, 『나목』, 『목마른 계절』,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를 분석하고 있다. 그에 의하면, 전쟁이 남긴 분단의 상처나 피해의식들은 「엄마의 말뚝 2」,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를 통해 잘 나타나고 있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를 보면 6·25로 인한 분단의 상처가 개인에서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⁸⁾

김희진은 박완서 문학의 특징을 풍자문학적 입장에서 분석하고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풍자성을 고찰하여 작가의식과 문학적 성과에 대해 언급한다. 그리고 다양한 주제의식이 어떻게 표출되는가의 문제와 여러 가지 풍자기법을 분석해서 박완서 소설의 한 특징을 중심으로 작품을 조망하려는 것이다.⁹⁾

전창호는 박완서의 소설에서 여성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한정하여 여성의 글쓰기가 가지는 의미와 여성주의 문학의 가능성을 밝히려고 한다. 그러나 그의 논문은 서구 이론에 따르는 방법론을 확립하지 못함으로써 실제 작품분석과의 괴리를 보이고 있다.¹⁰⁾

김기숙은 초기작에서 80년대에 이르는 박완서의 작품들이 6·25가 가져온 황폐한 삶의 모습과, 중산층들의 속물적인 모습을 주로 그리고 있으며 이러한 요소를 중심으로 작품과 작가의식의 특질에 대해 살피고 있다.¹¹⁾

8) 이경식, 「박완서 장편소설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9) 김희진, 「박완서 소설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10) 전창호, 「여성의 글쓰기와 자아발견의 서사구조」,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2.

이두혜는 『엄마의 말뚝』이 상호텍스트성을 보여주며, 작가의 자전적 요소들이 독자와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한다고 본다.¹²⁾

안광진은 『나목』,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의 소설을 연구 대상으로 삼아 작가 체험과 소설적 형상화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그는 박완서 소설에서 체험이 축소되었을 때는 소설력의 결함이 두드러져 사건이 우연성에 의존하거나 도식적인 인물의 창조로 통속 소설적 경향을 보이지만, 체험이 기반이 되었을 때는 뛰어난 문체와 묘사력을 구사하여 사건과 인물이 생생하게 전달되는 장점을 지닌다고 하였다.¹³⁾

윤철현은 박완서의 작품세계가 보여주고 있는 다양한 문제의식을 주제적 측면에서 접근하여, 총 76편의 작품을 10개의 경향으로 분류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전쟁과 분단, 소시민적 삶의 허위성, 여성문제를 다룬 작품들까지 분석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박완서 소설이 가지는 민족문제나 사회문제의 개인화와 여성문제에 대한 편협성 같은 방법론의 한계까지 지적하는 폭넓은 연구를 하였다.¹⁴⁾

이상에서 개략적으로 박완서 소설에 대한 선행연구를 살펴보았다. 그의 본격적인 연구가 진행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작품전체를 조망해 보는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러므로 한정된 작품과 주제만을 대상으로 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의 다수의 작품들이 페미니즘 비평이나 현실인식에 대한 연구와 같이 체험과 소설적 형상화에 대한 연구에 치우쳐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는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전쟁체험과 가족의 피해의식을 다룬 체계적인 연구가 없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가장상실과 가족상

11) 김기숙, 「박완서 소설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12) 이두혜, 「박완서 「엄마의 말뚝」에 나타난 서사 전략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13) 안광진, 「박완서 장편소설 연구-체험의 소설적 형상화를 중심으로」,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14) 윤철현, 『박완서 소설연구』, 부산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실, 인간성 상실, 복원상실의 문제들을 중심으로 논의 하고자 한다.

3.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우리가 겪은 한국전쟁은 동족상잔의 참혹한 비극이었다. 한국전쟁이 끝난 시기인 50~60년대 우리의 한국문학은 주로 전쟁의 비극적인 면을 반영하는 경향을 보였다.

전쟁문학으로서 그 상반기와 하반기의 것은 반드시 시간상 전후로 갈려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시기로 보서는 휴전과 함께 전쟁이 일단락을 짓고 문학도 서울 수복을 하고 다시 수년이 지나면서 차츰 전쟁에 대한 반성적인 의미가 문학 작품상에 반영되어 전쟁 문학으로서의 깊이를 얻게 되었다. 그 작품의 특징은 휴머니스틱한 경향을 띤 것이라 할 수 있다.¹⁵⁾

위에 인용한 백철은 당시 그 시대를 반영하여 나타난 소설의 특징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은 전쟁 상황에서 소설의 상관관계를 조망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양상은 1970년대에 이르면 전쟁 후의 현실과 분단의 모순, 그리고 분단 극복의지를 드러내는 작품들이 다수 등장하는 것으로 변모된다. 이는 현실에 대한 인식을 추구하는 두 가지 경향으로 나타난다. 전자는 분단 상황으로 인한 피해의식을 사회적 문제로 드러내는 것이며, 후자는 분단의식의 극복방의 심화이자 확대라 할 수 있다.

70년대 이후의 우리 소설은 분단 상황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그 극복의 방법을 법을 구체화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⁶⁾ 이것은 박완서의 초

15) 백철, 『신한국문학전집』, 어문각, 1978, p. 33.

16) 권영민, 『소설과 운명의 언어』, 현대소설사, 1992, p. 194.

기 소설에서 보여주었던 전쟁 체험에 대한 개인적 상처와 피해의식의 차원을 넘어 이를 분단과 이산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에 본고는 박완서의 작품들 중에서 6·25전쟁 체험으로 인해 고통 받는 가족들의 문제를 다룬 『나목』, 『목마른 계절』, 『엄마의 말뚝 2』,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를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정신적으로 고통 받는 가족 상실의 피해의식과 가장상실로 겪게 되는 생활상의 문제, 인간성 상실, 경직된 이데올로기로 인해 진실이 왜곡되는 사회양상들이 작품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박완서가 최근까지 발표한 소설을 주제에 따라 유형별로 분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1. 6·25로 인해 고통 받는 가족을 형상화한 소설

『나목』, 『목마른 계절』, 『엄마의 말뚝』,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2. 여성문제를 다루고 있는 소설

『그대 아직도 꿈꾸고 있는가』, 『서있는 여자』, 『살아있는 날의 시작』

3. 중산층 속물근성과 허위성을 고발한 소설

『도시의 흉년』, 『휘청거리는 오후』

4. 인간의식을 탐구한 소설

『욕망의 응달』, 『오만과 몽상』

5. 역사의식을 추구한 소설

『미망』

6. 성장소설

『조그만 체험기』, 『그 산이 정말 거기에 있었을까』,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박완서의 작품 중에서 『나목』, 『목마른 계절』은 작가의 자전적 요

소가 바탕이 된 초기작으로서 전쟁으로 인한 개인적 상처와 피해의식이 가장 직접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작가의 피해의식은 전쟁의 상흔문제가 사회적인 시각 속에서 치유방법이 찾아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상처로 고통 받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전쟁의 상흔 문제가 보다 넓은 사회적인 차원에서 조망되지 못하고 개인적인 차원의 문제로만 국한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박완서의 소설은 작가 자신의 직접적인 체험에 근간을 두고 있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에 나타나는 전쟁 체험의 소설적 변모 양상은 그의 전기적 사실에 대한 고찰을 통해 보다 의미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고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작품분석에 적용하기로 한다. 그것은 첫째로, 박완서 문학이 제시하는 6·25와 분단 상황, 이산 문제를 알아본다. 그리고 둘째로, 작품에 나타난 전쟁 체험의 양상을 인물들의 의식과 행위를 통해 알아본다.

이로써 작가의 6·25전쟁 체험이 가장 직접적으로 형상화된 작품들인 『나목,』과 『목마른 계절』을 텍스트로 하여 작가의 가족사적 아픔, 그리고 분단 가족의 피해의식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나목』에서는 서사 구조 분석을 기초로, 인물들의 황폐화된 삶과 피해의식을 살펴본다. 작품 속에 나타난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서 전쟁 상황으로 겪게 되는 인물의 모습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가도 알아본다. 또한 『나목』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쟁을 배경으로 한 체험 모티프를 분석하고 그것이 이후의 작품에서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 『엄마의 말뚝』에서는 모녀의 유대관계를 통해 전쟁의 폭력성과 상처, 그리고 이를 극복하려는 어머니의 분단극복의지가 어떻게 형상화되고 있는지 알아본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에서는 대립적 상황에 놓여 있는 인물들의 구조를 통해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상처와 재결합 문제를 작가가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마지막으로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에서는 해금작가의 실상이 그 가족들에 의해 거부되는 당시 사회의 문제점들을 알아본다. 결론에서는 앞장에서 다룬 내용들을 요약하고, 박완서 소설에서의 6·25전쟁이 가지는 문학적 의미를 밝힌다.

II. 체험의 소설화를 통한 개인과 가족의 피해양상

전쟁을 형상화한 초기 소설들에서 박완서는 자신이 체험한 가족사적 아픔, 즉 오빠의 죽음으로 인한 정신적 외상을 숨김없이 드러내고 있다. 이 작품들에서 6·25전쟁은 단순한 소재 차원이 아니라 작품 전면에 등장하면서 여러 인물들의 성격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6·25체험은 ‘문학정신의 뼈대’가 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체험의 소설화를 통해 박완서 소설의 커다란 특징으로 자리 잡게 된다. 그의 문학에서 6·25전쟁이 가장 직접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은 『나목』과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이다. 이 작품들은 전쟁으로 인한 가족들의 이산과 재회, 피난살이의 고통과 절망을 통해 전쟁의 비극성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목마른 계절』에서도 전쟁의 실상이 잘 드러나 있으며 『엄마의 말뚝』에서는 6·25의 비극성이 가족 관계를 통해 더욱 고통스럽게 드러나고 있다. 이 작품들 속에서 6·25전쟁 체험은 개인과 가족의 문제로 한정되는 만큼 작가의 가족이 겪은 피해의식을 통해 알아본다.

이번 II장에서는 전쟁을 체험한 소설 속의 인물들에게 전쟁으로 인한 피해양상들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그의 등단작인 『나목』을 시작으로 『목마른 계절』, 『엄마의 말뚝 2』 등의 여러 작품에서 6·25는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는데, 본고는 작가의 전기적 사실과 소설적 상상력이 어떠한 상관관계와 연관성을 가지는지부터 살펴본다.

1. 체험의 소설화

박완서는 기억의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체험을 소설적으로 형상화 하는 데 성공한 작가 가운데 하나이다. 그만큼 작가의 체험은 그 작품을 이해하는 중요한 열쇠로 작용하는데 처녀작 「나목」부터 「엄마의 말뚝 2·3」 「그 많던 싱아를 누가 다 먹었을까」를 거쳐 최근 「그 남자의 집」에 이르기까지 작가 생애의 어느 부분인 6·25를 겪으면서 그대로 그려져 있다는 것이 매우 특징적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나목」 또한 작가가 P·X에서 일했던 체험에서 박수근 화백을 만났던 실제 이야기가 주된 줄거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엄마의 말뚝」에서도 작가의 작품에 수 차례 반복되어 등장하고 있는 가족사, 오빠의 죽음이 이야기의 큰 줄기를 관통하고 있다.

작가에게 오빠는 한 집안의 정신적인 지주와 같은 존재였다. 「목마른 계절」에서는 그런 가장을 중심으로 전시하 서울에서 겪어야 하는 생존의 문제를 리얼하게 그리고 있으며,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에서도 실제로 숙명여고 시절 국어교사인 박노갑의 이야기가 바탕을 이루고 있다.

1988년 해금이후 실제로 있었던, 혹은 있을 수 있는 이야기들이라는 점에서,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를 비롯한 박완서의 체험을 소설화한 작품들은 그만큼 생생하고, 사실적이다. 작가의 체험이 가장 생생하게 드러나 있는 『나목』을 통해 체험이 형상화되는 과정을 도표로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 작가의 체험과 소설의 비교 >

	자신의 체험적 요소	소설적 형상화 요소
직업	나는 생계를 위해 20세 때 미군 P·X 초상화부에서 근무함	주인공은 20세 정도의 나이에 생계를 위해 미군 P·X에서 근무함
피해 상황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오빠와 숙부가 죽음	폭격으로 두 오빠가 죽음
어머니의 상황	어머니가 실의에 빠짐	두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 어머니는 정신병으로 느껴질 만큼 심한 비탄에 빠짐
가족 상황	폐가에서 어머니와 올케, 두 조카와 함께 삶	어머니와 단 둘이 폐가에서 삶
주변인물	화가 박수근을 만남	화가 옥희도를 만나 사랑에 빠짐
상처의 극복	22세 때 남편과 결혼함	어머니가 급성폐렴으로 돌아가시고 황태수와 결혼 함

『나목』에서는 작가의 체험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6·25전쟁 상황이 가져다준 피폐한 상황과 그 속에서 대립적 인물들이 보여주고 있는 황폐화된 삶의 모습과 피해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목마른 계절』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전쟁 상황으로 인한 생존의 문제를 대립적으로 다루면서 이데올로기의 허위성과 관념성을 비판한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6·25로 인해 가족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과 그 이후에 이산가족들이 다시 결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이산가족들이 다시 만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은 인간의 이기심과

허위의식에서이다.

『엄마의 말뚝 2』는 분단가족의 고통이나 민족적 고통에 대해 깊은 관심을 쏟은 작품이다. 『엄마의 말뚝 3』은 전쟁 당시에 죽은 오빠를 통해 남겨진 가족들의 상처를 후일담으로 그려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엄마의 말뚝 2, 3』은 전쟁의 폭력성이 가져온 가족상실의 상처를 이들 모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전쟁은 실함과 이산에서 오는 돌이킬 수 없는 분단 비극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들의 상처는 시간이 흘러도 치유되지 않고 아픈 상처로 남아 있다.

“안된다 이 노움”이라는 호통과 “군관 나오리, 군관 선생님, 군관동무”라고 아부를 번갈아 하며 몸부림치는 서슬에 마침내 링거줄이 주사바늘에서 빠져 버렸다.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사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逆流)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였다.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했다. “이노움, 게 셋거라, 이노움, 나도 죽이고 가거라 이노움,”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갈았다, 틀니를 빼놓아 잇몸만으로 이를 가는 시늉을 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나 말고 누가 또 본 사람이 있을까.¹⁷⁾

이 작품 속에 전쟁의 폭력성은 어머니의 무의식 속에서 그대로 남아 치유 불능의 상처로 덧나고 있다. 어머니는 아들의 죽음때문에 노년까지 자유롭지 못했다. 이렇듯 수술한 다리를 아들로 알고 비극을 되풀이하는 어머니의 모습은 ‘나’로 하여금 과거 오빠의 죽음을 생각나게 만든다. 동란 전까지 좌익 사상에 휩쓸렸던 오빠는 도피한 이승만 정부를 원망하며 불안 속에서 살아간다. 이웃의 고발로 인민군에 끌려갔다가 기적처럼 살아오지만 오빠는 실성을 한다. 어머니는 오빠를 현저동 집에 피신시키나 인민군이 쏜 총에 맞아 죽게 되고 어머니와 딸은 깊은 원한을 갖게 된다.

17) 박완서, 위의 책, pp. 95~97.

이러한 오빠의 죽음에 대한 기억 때문에 환각 증세를 보이던 어머니는 의식을 회복하면서 자신이 죽으면 아들을 화장한 방식대로 해주길 바란다고 ‘나’에게 유언을 한다.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분단이라는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¹⁸⁾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어머니는 한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分斷)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¹⁹⁾

「엄마의 말뚝 2」에서 보여준 어머니의 강한 의지는 「엄마의 말뚝 3」에서 어머니의 죽음으로 마무리된다. 「엄마의 말뚝 3」은 어머니가 골절상으로 수술 받은 후부터 장례식까지 7년 동안의 이야기로, 어머니의 생명이 꺼져 가는 과정과 죽음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이제 어머니는 공원묘지에 매장이 되고 휴전선 이남의 이산가족이면서 실향민으로서 이땅에 말뚝을 박는다. 여기서 ‘말뚝’의 의미는 집이나 삶의 근거, 보호 공간, 엄마의 정체성, 묘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분단국으로 남아야 했던 한국전쟁은 공산주의 대 민주주의라는 이데올로기 대립전이었다. 그 당시의 전쟁 상황이 반영된 『목마른 계절』에서도 전쟁의 체험이 반영되어 있다. 이 작품은 1972년 작가가 42세 되던 해에 「한발기」로 『여성동아』에 연재되었고, 1987년 수문서관에서 『목마른 계절』로 출판된 작품이다. 6·25전쟁이 일어난 1950년 6월부터 그 다음해 5월까지 한 해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달마다 나누어 엮어 10장으로 구성된 장편소설로 작가 자신의 6·25체험이 직접적으로 형상

18) 박완서, 『박완서 소설전집 7』, 「엄마의 말뚝 2」, 세계사, 2003, p. 111.

19) 박완서, 위의 책, p. 222

화된 작품이다. 이 소설은 서울 돈암동과 현저동을 공간적 배경으로 전개되는데,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하진은 바로 박완서 자신이라 할 수 있다. 하진과 오빠인 하열의 가족이 극단화된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고통 받는 모습을 그리고 있으며 전쟁의 현상이 직접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하진이 S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쟁이 일어나면서 도시는 파괴되고 대학의 기능도 상실된다. 6월 25일 일요일에 하진의 오빠 하열이 능곡에 있는 학교 농원에 모내기하러 집을 나간 후 38선 전역에 괴뢰군이 남침했다는 뉴스를 듣게 된다.

그 후 하열은 전쟁 전 잠시 좌익운동에 가담했다가 공산주의에 환멸을 느끼고 전향한 인물이다. 전쟁이 터지자 그는 동지였던 무리들의 회유에 혐오감을 느끼며, 변신을 하는 애매한 태도를 보인다. 살기 위해서 어느 한 쪽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다. 하열은 자발적인 전향이라고 하면서도 공산주의자들의 반대편에 설 수가 없다. 이미 서울은 공산주의자들의 지배권 하에 들어가 있었고 그의 애매한 자세는 용납되지 않았다. 하열은 결국 의용군으로 끌려가 죽을 고비를 넘기며 도망치지만 오히려 공산주의 쪽에서는 도망친 비열한 인민군으로 총살 대상이 되고, 자유진영 쪽에서는 의용군으로 오인되어 시민증을 받지 못하게 된다. 어느 한쪽을 명백히 선택해야 하는 전쟁 상황에서 방관자적 입장을 고수했던 하열은 1·4 후퇴 때 피난을 가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된다. 하열과 반대로 하진은 공산주의를 선택한다. 그녀는 민청단원으로서 석 달 동안 학교에 나가 반동분자의 명단도 작성하고 비행기 기금 모금도 하러 다니는 공산주의자인 것이다. 하지만 점점 그녀는 열성적인 당원이 되지도 못하고, 당을 위한 그 무엇에도 진정으로 동조하지 못하는 방관적 인물이 되어간다. 하진이 겉으로는 이념에 충실하다가 내면에 흐르는 공산주의 이념에 대한 회의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하열이 인민군으로 끌려가고 나서부터 이다. 결국 하진은 공산주의에 대한 반감을 가지는 데까지 이른다. 하진은 인민을 위한다면서 자신들의 동조자들을 전

쟁터로 내보내는 이데올로기의 허상을 본다. 결국 하진은 “빨갱이와 흰 등이의 죽고 죽이는 순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된다.

“특하면 ‘자유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면’, 저쪽 편에선 ‘수령이나 사회주의 낙원을 위해서라면’ 일전도 불사할 결의를 보여야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치졸한 애국 애족에서 깨어나 좀더 깊이 생각하게 될 거예요. 결국 이데올로기라는 것도 사람을 잘살게 하기 위해 사람이 만들어 낸 거지 이데올로기 나고 사람 난 건 아니잖나 하고.”²⁰⁾

『목마른 계절』은 이데올로기 대립으로 벌어진 전쟁이 비극을 만들어내고 있는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정규웅은 문학작품이 이데올로기 문제를 다루는 것은 작가 주관의 객관적 진실을 외면하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라고 하면서, 6·25를 겪지 않는 세대들에게까지 『목마른 계절』이 폭넓은 공감을 주고 있음을 지적한다.²¹⁾

6·25 전쟁에는 두 가지 형태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반동이라고 해서 이북에서 죽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빨갱이라고 해서 남한에서 죽인 죽음입니다. 그런데도 저는 모든 죽음을 빨갱이가 반동이라고 해서 죽인 것으로만 썼었습니다. 이렇게 정직하지 못했던 것, 정직 할 수 없는 것이 앞으로의 전쟁 문학에서도 큰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양쪽이 다 이데올로기에 눈이 멀어 얼마나 비인간적이며 잔혹했던가를 똑같이 증언하고 싶은데 못했던 것, 이것은 제 경우만 아니라 다른 작가들에게도 공통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²²⁾

『나목』은 작가의 6·25체험이 가장 직접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으로 당시의 피폐한 상황과 대립적인 인물들의 피해의식이 드러난 소설이다.

20) 위의 책, pp. 298~299.

21) 정규웅, 『제삼세대 한국 문학-박완서』, 삼성출판사, 1983, p. 420.

22) 박완서, 「6·25 분단문학의 민족동질성 추구하고 분단 극복의지」, 『한국문학』, 1985. 6, p. 49.

『나목』은 1970년 『여성동아』 장편소설 공모에 당선된 작품이다. 전체가 17장으로 구성된 『나목』은 6·25 직후인 1951년에서 1952년까지의 겨울을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당시 서울을 공간적 배경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 소설 속에서 작가는 6·25 체험을 끄적할 정도로 섬세하게 그려내고 있다.²³⁾ 6·25 전쟁 직후 가장이 부재한 상황에서 주인공 경아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미군부대 P·X 매장에서 일하면서 겪는 심리적 갈등을 그리고 있다.

경아는 전쟁 중에 폐허가 된 고가(古家)에서 어머니와 단둘이 살지만 어머니는 6·25전쟁 중 폭격으로 죽은 두 아들을 늘 잊지 못해 실의에 잠겨서 살고 있다. 경아는 자신이 오빠들을 죽게 한 장본인이라는 피해의식 속에서 어머니가 하루빨리 그 회색빛의 절망상태에서 벗어나기만을 바란다. 경아는 P·X 매장에서 처음 보는 옥희도의 모습에서 어머니와 같은 회색빛 모습을 느낀다. 어머니에게서 느껴지는 부연 회색빛은 전쟁 때문에 자신의 일부인 아들을 잃어 회복될 수 없는 것인데 반해, 옥희도의 회색빛은 전쟁 상황이기 때문에 예술가의 길을 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전쟁이 끝나면 얼마든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결국 혼자가 된 경아는 황태수와 결혼하고 옥희도의 유작전을 관람하면서 예전에 보았던 그림이 고목(枯木)이 아니라 인

23) 6·25 전쟁 중 박완서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미군 부대 P·X의 초상화부에서 근무

하게 된다. 여기서 작가는 화가 박수근을 알게 되고, 이십 여년이 흐른 뒤에 그를 기리기 위해

이 작품을 쓰게 된다. 처음 의도는 박수근의 전기를 쓰겠다고 시작한 것이 소설을 쓰게 되는

계기가 된다. “나는 논픽션을 단념하는 대신 픽션을 쓰기로 작정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나의 처녀작 『나목』이다. …… (중략) …… 전기를 소설로 바꿈으로써 상상력에 제한을 안

받게 되고 도리어 있었던 사실만을 모아서 구성할 때보다 그의 진실에 훨씬 흡사하게 창조할

수가 있었고, 그 시대를 더욱 더 생생하게 재현할 수가 있었다.

(박완서, 『박완서 문학앨범』, 웅진출판사, 1992, p. 183.)

고의 봄을 기다리는 나목(裸木)이었음을 알게 된다.

두 오빠의 죽음과 어머니의 죽음으로 고가가 붕괴된 어두운 흥가엔 뿌리의식이 모두 파괴된 채 허탈과 절망만이 있을 뿐이다. 고가의 해체는 한 세대의 몰락을 의미하는데 가부장적인 갈등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해소되고, 옥희도는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진정한 예술가로서의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된다. 태엽의 힘으로 술을 마시고 북을 치는 침팬지와, 달러의 위력으로 외국 사람의 얼굴을 그리는 옥희도는 전쟁의 희생자이다. 태엽의 힘이나 돈의 위력 없이 온전히 그릴 수 있는 그런 예술가의 길을 가기 위해 옥희도는 경아와 헤어지고, 경아는 현실적이고 속물적인 태수와 결혼을 한다. 옥희도가 그린 그림 속에서 전쟁으로 인해 황폐해진 불모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자신과 옥희도의 모습을 보면서 옥희도의 그림이 고목인 것은 경아의 청춘이 전쟁 때문에 잠시 움추러졌으나 결혼 후 고목이 아닌 회생 가능한 나목임을 발견한다. 암울했던 시기에 경아는 어린 가장으로써 자신 앞에 처한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지닌다. 결국 『나목』과 『엄마의 말뚝』은 전쟁으로 인한 상흔을 극복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위의 고목(枯木)과 나목(裸木)은 모두 경아에게 보여진 옥희도의 모습이다. 즉 전쟁이라는 상황은 경아와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든 원인이었으며, 화가인 옥희도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처지로 만들기도 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경아의 갈등은 차츰 없어져 간다. 그것은 경아의 앞날에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에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옥희도의 유작(遺作) 전시회에서 경아가 느낀 것은 예전에 자신이 보았던 부연 무채색의 고목이 아니라 봄에의 믿음을 간직한 나목인 것이다. 그것은 암담한 시대를 한 점의 희망으로 보려는 작가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인물들이 절망하면서도 거기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하고 살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나목』은 전쟁 상황으로 인해 각각의 인물들이 겪는 대립 관계를 통해서 피해의식들이 극복되어지는 점들을 작품 속의 사건과 실제상황을 비교해본다.

작가는 『나목』이 화가 박수근과의 만남을 바탕으로 했음을 밝히고 있다. 이 작품에서 전쟁은 작품 전반에 등장하면서 여러 인물들의 성격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 이 전쟁은 오빠들의 죽음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존재가 전혀 다른 인물로 변화된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먼저 잡수시지 않고……”

나는 내가 밥그릇을 반쯤 비울 때까지 맞은편에 우두커니 앉았다가 수저를 들기 시작하는 어머니에게 웬지 짜증 비슷한 걸 느꼈다. 어머니가 별로 소리도 내지 않고 한껏 느릿느릿 수저를 놀리면서 의치를 빼놓은 호물때기 입을 이상한 모양으로 우물거리는 것을 보고 있으면 먹는다는 것이 무슨 저주받은 의무를 느끼며 나는 미처 배가 부르기도 전에 식욕부터 가셨다. 나는 먼저 수저를 놓고 어머니의 식사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왈각왈각 치미는 혐오감의 되새김질을 했다. 나는 어머니가 싫고 미웠다. 우선 어머니를 이루고 있는 그 부연 회색이 미웠다. 백발에 듬성 듬성 검은머리가 궁상맞게 섞여서 머리도 회색으로 보였고 입은 웃도 늘 찌들은 행주처럼 지쳐 빠진 회색이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견딜 수 없는 것은 그 회색빛 고집이었다. 마지못해 죽지 못해 살고 있노라는 생활 태도에서 추호도 물러서려 들지 않는 그 무섭도록 탄탄한 고집, 나의 내부에서 꿈틀대는, 사는 것을 재미나 하고픈, 다채로운 욕망들은 이 완강한 고집 앞에서 지쳐가고 있었다.²⁴⁾

『나목』과 『목마른 계절』은 작가의 6·25 체험이 가장 직접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이다. 『나목』에서는 작가의 체험적 요소를 바탕으로 하여 6·25전쟁 상황이 가져다 준 피폐한 상황과 그 속에서 대립적 인물들

24) 위의 책, p. 17.

이 보여주고 있는 황폐화된 삶의 모습과 피해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목마른 계절』에서는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전쟁 상황으로 인한 생존의 문제를 대립적으로 다루면서 이데올로기의 허위성과 관념성을 비판한다.

6·25로 인한 상처는 우리 민족 모두의 상처이지만 작가는 객관성을 가지고 전쟁 체험을 형상화한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빚어진 전쟁 상황 속에서 가족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의 현실로 하진과 하진 가족의 인물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파괴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인물들이 전쟁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그 변화 속에서 나타나는 것은 무엇인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전쟁 체험은 상황의 급박함과 극한적 세태로 인해 인간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기도 한다. 상황의 변화에 따른 인간 행위의 변화는 하열과 하진을 중심축으로 하여 그 가족들의 변화를 통해 알아 볼 수 있다.

전쟁이 터지고 인민군이 서울을 점령하자 하진의 가족은 이웃들에게 빨갱이 가족으로 낙인찍힌다. 하열이 전쟁 전 잠시 좌익운동을 했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오래도록 잘 지내던 이웃마저 진이네를 경계하게 된다. 그 피해를 먼저 입은 사람은 은행집 마나님인 서여사로 접촉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자신들도 피해를 입지 않을까 해서 경계하게 된다. 사람들은 이렇게 적과 내편을 사상으로 판가름해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깃발의 색이 바뀌면 기분이 역전될 뿐인 상황이 9·28이후에도 그 위세는 여전했다. 그래서 그들은 1·4후퇴 때 빨갱이로 몰릴까봐 겁도 났지만 그 집에서 또 다시 빨갱이 세상을 맞기가 무섭기도 하고 이웃들의 불신 때문에 시민증도 없이 무턱대고 떠난다. 『목마른 계절』에서 먼저 중립적인 태도를 보인 그는 의용군으로 끌려가나 탈출해 집으로 오던 중에 파리 목숨 같은 인간의 대량 학살의 수많은 시체더미를 보고서 그 후로는 인간 기피증과 불면증을 겪게 되면서 폐인이 되어간다. 시민

증을 얻어 피난을 가다가 인민군을 만났을 때는 실성을 하고 만다. 이러한 전쟁의 광기가 인간의 본성을 상실하게 만들었음을 의미한다.

『목마른 계절』에서 하열의 죽음과 『나목』에서 나타났던 오빠들의 죽음이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빠의 죽음은 박완서에게 6·25체험의 가장 비극적 요소이며 그의 가족을 중심으로 박완서 작품에서 수없이 반복되어 나타나면서 작가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박완서에게 오빠는 아버지 같고 우상 같은 존재였기 때문에 고통스런 체험 속에 끊임없이 작품마다 나타나는 모티프가 된다. 『목마른 계절』에서 하진과 어머니의 관계는 『나목』에서의 대립과 갈등의 관계로 나타나지 않는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빈집털이를 다니는 며느리와 딸을 말리지 않았던 이유가 오직 아들을 지키고자 했던 어머니의 마음이었다. 그러나 아들이 인민군의 총에 학살당하자 결국 어머니는 실성을 하게 되고 매일 매일을 아들이 묻힌 곳에서 아들을 재우듯 자장가를 부른다. 『목마른 계절』에서 전쟁 발발 후 얼마동안 진이네 가족은 학교 선생인 열이 의용군으로 잡혀가자 월급대신 받던 양곡을 주지 않아 대학 일년생인 진이가 결국 만식의 울케와 노모를 부양하면서 살아남으려 애쓴다. 약삭같이 하루의 양식을 구해야 했기 때문에 하진과 그의 친구인 순덕은 높은 관사 담장의 꿈 깃지를 따라 “치마 자락이 훌쩍 올라가는 수치심을 감수하면서도 도둑질은 계속 되어진다. 또한 피난이 너무 가고 싶어 길거리 군인 장교들에게 걸려들기를 은근히 바라게 되면서 하진의 인간성은 점차로 상실되어져 간다. 결국 작가는 전쟁의 체험을 통해서 이데올로기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이념보다는 오로지 살아야 한다는 생존욕구를 강하게 지니게 된다. 『목마른 계절』에서 작가는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전쟁 상황으로 인한 생존의 문제를 대립적으로 다루면서 이데올로기의 허위성과 관념성을 비판한다. 또한 이런 비판과 부정을 통해 전쟁 상황 하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얼마나 절실했는가를 인물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인간다움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전쟁 상황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즉, 작가는 분단과 이산으로 인해 이산가족의 재회문제와 전쟁으로 야기된 사회의 문제점들을 세대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것은 오목과 수지, 수철의 재회가 개인적, 가족적 차원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분단 문제로까지 확대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반세기가 지난 지금까지 분단의 아픔에 대한 책임이 사회의 속물근성적인 이기주의와 허위의식에 있다는 걸 의미하고 있다.²⁵⁾이로써 물질만능의 사회가 초래한 개인적 이기심으로 인해 가족의 재결합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것 인지를 보여주고 있다.

2. 내면세계의 파괴와 상실

자신의 먹을 것을 지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피난민 대열에서 동생인 오목이를 버리게 되는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수철 수지, 오목이 (수인) 세 남매의 이야기이다. 수지와 수철은 1951년 겨울의 추위와 굶주림으로 한 숟가락의 밥을 덜어내기가 싫었고, 한 개의 고구마를 빼앗기는 것이 아까워 아무도 모르게 동생을 내버렸다.

‘옛날 옛적 중국의 춘추전국시대, 조(趙)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한나라 위나라의 연합군이 쳐들어와 도성을 포위했다. 도성이 포위된 지 일 년, 도성사람들은 굶주릴 대로 굶주려 아귀가 뒹에 마침내 서로 자식을 바꾸어가며 잡아서 먹이로 삼았다’. 역사시간에 학생들이 졸면 역사 선생님은 이렇게 괴기한 옛날예기를 곁들였다 …… (중략) …… 그녀 역시 옛날에 한 숟가락의 밥을 덜어내기가 싫어서, 한 개의 고구마를 빼앗기는 게 아까워서 아무도 모르게 동생을 내다버린 적이 있기 때문이었다.²⁶⁾

25) 김민옥, 「박완서의 전쟁 같은 소설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p. 22.

이 작품은 전쟁으로 인해 저지른 형제 유기와 죄의식에서 괴로워하는 주인공의 심리와 행동을 집요하게 추적하고 있다. 즉, 전쟁과 인간의 원초적인 이기심이 빚어내는 죄의 양상과 치유를 위해 몸부림치는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런 줄거리로 파악한다면 상당히 대중적이고 통속적인 성격²⁷⁾을 지닌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한국 전쟁에서 비릇된 사회 모순과 병폐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오목이가 가족과 헤어져 전쟁고아가 되는 것은 전쟁이라는 특수 상황이기도 하지만 수지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이다. 수지는 자신의 먹을 것을 지키기 위해 고의적으로 피난민 대열에서 오목이를 버리고 그것을 은폐하는 행동을 한다. 이는 자신이 죽지 않기 위해 남을 죽여야만 하는 전쟁의 속성을 대변하는 것이다.

마룻방에 있는 고아들의 사물함에 붙은 이름표에서 <목이>의 성이 오가라는 건 누구 눈에나 쉽게 띄었다. 대개의 고아들은 유원장의 성을 따라 유영팔, 유재성, 유순영, 유옥분...이었기 때문이다. 수지는 그 쉽게 눈에 띄는 성명을 무심히 붙여 읽었다. 오목이, 오목이, 오목이... 입에 침이 마르고 가슴이 떨렸다(중략) 그러나 수지는 벌써 몇 년째 <오누이의 집>을 단골로 다니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물어보지 않았다. 그것을 물어보기는커녕 목이에 대한 그녀의 특별한 관심조차 감쪽같이 숨기고 있었다.²⁸⁾

전쟁이 끝난 후에 수지는 오목이를 찾으러 고아원을 방문하나 자신의 동생이 분명한 오목이를 발견하고도 수인이라는 이름으로 찾으면서 동생인지를 확인하지 않는다. 또한 오누이의 집이 문을 닫아 고아들이 모두 흩어지게 된 상황에도 태연하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외적으로는 6·25 전쟁으로 인해 가족이

26)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도서출판 세계사, 1994, p. 32.

27) 이동하, 「한국 대중소설의 수준」, 『해방 40년의 문학 4』, 민음사, 1985.

28) 위의 책, pp. 40~41.

해체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과 그 이후 이산가족들이 다시 결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작품의 심층에서 이산가족을 만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인간의 이기심과 허위의식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목마른 계절』에서 하진의 가족이 전쟁을 겪으면서 인간적으로 고통받는 내면의 세계가 파괴되고 상실되어지는 문제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오빠는 서서히 죽임을 당했다. 그것도 정신과 육체가 따로따로, 오빠가 완전히 죽기까지는 장장 일년이 걸렸다…… (중략)…… 한 쪽에서 오빠를 반동으로 몰아 갇은 악랄한 수단으로 어르고 공갈치고 협박함으로써 나약한 지식인에 지나지 않았던 그를 마침내 폐인을 만들어 놓고 말았고…… (중략)…… 다른 한 쪽에선 폐인을 데려다 빨갱이라고 죽치기가 맥이 빠졌는지 슬슬 가지고 놀고 장난치다 당장 죽지 않을 만큼의 총상을 입혀서 내팽개치고 후퇴했다.²⁹⁾

하진은 강한 생존 욕구로 인해 점차 인간성이 상실되어 간다. 또한 동족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적이 되어 총칼로 생명을 위협하고, 이웃들이 서로 믿지 못하여 적과 내편으로 갈리는 각박한 세상으로 변한다. 6·25이후 일 년 동안 서울의 중앙청 깃발이 4번이나 바뀌는 상황에서 빨갱이인 적과 내편 중에서 어느 하늘 아래 살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했다. 좌도 우도 아닌 중립적인 하열이 의용군으로 끌려갔다 탈출해오던 중에 인간 대량학살의 수많은 시체더미를 보고서 인간 기피증과 불면증으로 망가지고, 이념의 현장에서 도망쳐 폐인이 되어간다. 전쟁의 광기는 인간다운 본성마저도 상실하게 만들었고 가족들의 아픔을 더욱 가중시켰다.

작가는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전쟁 상황으로 인한 생존의 문제를 대립적으로 다루면서 이데올로기의 허위성과 관념성을 비판한다. 이런 비판

29) 박완서, 『박완서의 문학앨범』, 앞의 책, p. 124.

과 부정을 통해서 전쟁 상황 하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얼마나 절실했는가를 이들 인물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으며, 인간다움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전쟁 상황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끝까지 국민을 지켜야 할 정부마저도 국민을 저버린 채 도망하더니 다시 수도로 돌아와서는 국민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조차 없었다. 고발당한 사람들이 제대로 조사도 받지 못하고 죽어 나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시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웃을 신고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의 본성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살아남기 위해서 주변을 살필 뿐이다.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오발 사고로 다리에 부상을 입은 오빠 때문에 피난을 떠나지 못하게 된 『목마른 계절』의 ‘진이’ 가족은 이웃의 눈을 피하기 위해 H동으로 가짜 피난을 떠난다. 세상이 좀 잠잠해지면 피난을 떠났다가 돌아오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이다.

파괴된 도시의 집을 버리고 피난을 떠난 사람들의 빈집을 뒤져 먹을 것을 구하겠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심마저도 저버린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진이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유일한 방법은 남의 빈집을 터는 것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고발당한 사람들이 제대로 조사도 받지 못하고 죽어 나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도시인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웃을 신고한다. 사람들은 더 이상 인간의 본성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은 채 살아남기 위해서 주변을 살필 뿐이다. 나와 내 가족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상관없다는 생각으로 살아 나간다.

변화가인 충무로조차도 어두운 모퉁이, 불빛 없이 우뚝 선 거대한 괴물 같은 건물들 천지였다. 주인 없는 집이 아니면 중앙우체국처럼 다 타 버리고 윗구멍이 뺨 뚫린 채 벽만 서 있는 집들, 이런 어두운 모퉁이에서

나는 문득문득 무섭을 탔다.³⁰⁾

『나목』은 UN군에 의해 재 수복되기는 하였지만 아직 환도되지 않은 서울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다. 이 작품은 전쟁이 가족들의 성격과 행동을 어떻게 지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이 소설에서는 시간 역전 기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현재의 이야기에 과거의 이야기가 삽입되면서 소설이 전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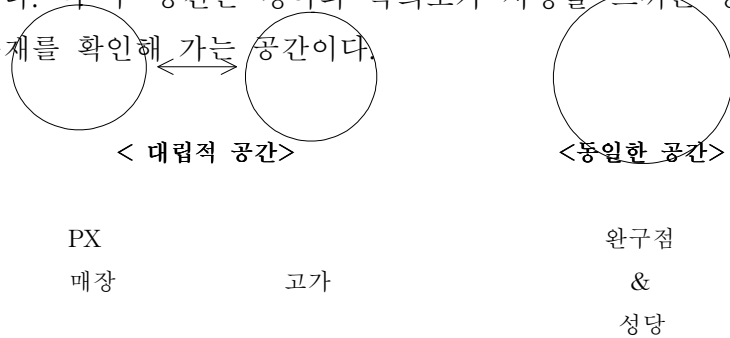
- 1-1. 나(이경아)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미8군 P·X 매장 초상화부에서 환쟁이들에게 미군들의 애인을 상대로 초상화 주문을 받아 그림을 그리는 점원이다 (p. 11).
- 1-2. 나는 우리집의 기둥이자 가장인 오빠와 행복하게 살던 때가 생각나지만 전쟁 때문에 두 아들을 잃고서 몹시 허전해 하는 어머니의 회색빛 모습은 싫어 한다 (p. 17).
2. P·X 매장에 처음 들어온 옥희도는 환쟁이들과는 다른 느낌을 주는 사람이긴 하나 그날은 함께 퇴근하면서 자신의 어머니같이 그늘진 모습을 하고 있어 실망하게 된다 (p. 28).
3. 나는 다이아나의 부탁으로 영문편지의 답장을 써주고 맛있는 점심을 얻어먹게 된다. 나는 두 오빠들을 죽게 만든 전쟁이 싫긴 하지만 평화도 바라지 않는다 (p. 33).
- 4-1. 나는 전기를 고치러 온 전공(電工)인 황태수와 만나면서 옥희도씨가 전쟁 전에 전시회에도 입상했던 화가라는 것을 알았다 (p. 39~45).
- 4-2. 나는 큰아버지가 집에 오셨을 때 그들도 그 고통이 공유되기를 바랬다 (p. 49).
- 5-1. 얼마 후 나는 저녁식사 후에 위스키를 혼자 따라 마시는 문구점안의 장난감 침팬지를 옥희도씨와 지켜보면서 무언(無言)의 연민 같은 것을 느낀다 (p. 65).
- 5-2. 나는 불현듯 전쟁 전에 돌아가신 아버지가 생각난다 (p. 66).
6. 나는 태수와 크리스마스 모임에 간다 (p. 69).
- 7-1. 내가 태수와 옥희도씨 집에 갔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는 죽은 오빠 생각에

30) 박완서, 『나목』, 세계사, 1995, p. 15.

- 넋이 빠져 있어 다투게 된다 (p. 97).
- 7-2. 나는 집에 있으면 오빠들 기억만 갖고 있는 어머니가 미웠고, 밖에서는 옥희도씨 부인을 볼 때 호감은 가지만 묘한 질투심을 느낀다 (p. 90).
- 8-1. 나는 새해 아침에 떡국 대신에 멸진 김치국을 끓여준 어머니와 다투고는 태수를 만나러 나가 버린다 (p. 96).
- 8-2. 나는 때때옷을 입고 아버지께 세배 드리던 지난날을 회상한다 (p. 99).
(나는 복잡다단한 삶을 떠나서 회색빛 일색으로 늘어진 어머니가 싫었다.)
- 9-1. 나는 옥희도씨와 퇴근 후에 집에 온 진이와 다투게 된다 (p. 101).
- 9-2. 딸을 예뻐하시던 아버지 모습이 떠오른다 (p. 140~141).
10. 어느 날 태수와 함께 태수 형수를 만난다 (p. 156).
(나는 회색빛 일색의 옥희도씨가 그리워진다.)
- 11-1. 나는 성당 앞에서 옥희도씨와 사랑을 나눈다 (p. 172~173).
- 11-2. 나는 살림꾼이었던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미친 전쟁에서 놓여날 수 없다는 느낌을 갖는다 (p. 189).
- 12-1. 나는 미군 병사 조오를 만난 후 옥희도씨 집에 가서 그의 그림을 본다 (p. 195).
- 12-2. 나는 작년 뜰 앞의 은행잎 빛깔을 생각하며 옥희도씨의 그림이 고목이었다는 생각을 한다(p. 196).
- 13-1. 나는 조오와 경서 호텔을 가나 정사 직전 도망친다 (p. 212).
- 13-2. 나는 오빠들이 죽던 날의 찢겨진 육체와 피 묻은 시트를 떠올리면서 죽을 당시 고통스런 모습에 눈물을 흘린다 (p. 212).
14. 나는 행복했던 지난날들과 아버지의 죽음, 그리고 행랑채에 숨어있던 오빠들이 죽던 날을 회상한다.
(잘 살아 남아준 자신을 외면만 하는 어머니가 미웠고, 오빠 대신에 살아남게 된 죄책감이 커서 더욱 죽고 싶다는 충동을 느끼지만 반면에 살고 싶다는 욕망도 느낀다) (p. 214).
- 15-1. 나는 매장에 출근하지 않은 옥희도의 월급을 갖고 그의 집을 방문해 자고 있게 된다 (p. 237).
- 15-2. 의식을 차린 어머니의 첫마디는 오빠들이 죽은 게 모두 나 때문이란 말에 죄책감이 너무 커서 몸 둘 바를 몰랐다 (p. 254).
16. 어머니가 급성 폐렴으로 돌아가신 후 혼자가 된 나는 옥희도와 이별하고 황태수와 결혼한다 (p. 277).
- 17-1. 근 10여년이 지난 후 남편 태수와 나는 옥희도의 작품을 보러간다 (p. 284).

17-2. 나는 예전의 옥희도의 집에서 본 그림 속의 고목을 생각한다 (p. 285).

『나목』은 기억과 체험이 하나의 이야기를 형성함을 알 수 있다. 각 사건 내에는 시간 역전기법을 사용하여 과거의 일을 회상한다. (1-2, 4-2, 5-2, 7-2 8-2, 9-2, 11-2, 12-2, 13-2, 15-2, 17-2). 즉, 현재의 이야기에 지난 이야기가 삽입되어 있어 이야기 전체의 통합을 구성한다. 『나목』은 각 장마다 현재의 사건과 과거의 기억이 교차하고 있으며, 그를 통해 과거의 일을 회상하는 주인공 경아의 심리가 그려진다. 이 작품의 주된 공간적 배경은 ‘P·X 매장’과 ‘고가’이다. 이 두 공간은 옥희도와 경아, 어머니와 경아의 대립관계가 직접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회색빛의 공간이며, 전쟁으로 인해 피폐해진 상황을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다. 그 외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닌 공간으로는 ‘성당’과 ‘완구점’이 있다. 이 두 공간은 경아와 옥희도가 사랑을 느끼는 공간이며 서로의 존재를 확인해 가는 공간이다.



(회색빛 삶의 공간)

(사랑의 확인 공간)

이 작품에서 인물들은 위에 도표화된 공간을 순환적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 인물 관계와 갈등구조가 형성된다.

경아와 어머니의 관계는 경아와 어머니가 전쟁통에 두 오빠를 잃었다는 사건이 직접적으로 제시되는 것은 한 단락(14)이다. 그러나 서사 진행 과정에서 경아가 떠올리는 과거의 기억을 통해 제시되는 상황(1-2,

3, 4-2, 7-2, 8-2, 9-2, 13-2, 14)을 보면, 어머니와 경아는 전쟁으로 인해 두 오빠를 잃었으며 이로 인해 분단가족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고 서로 대립된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와 딸의 대립과 갈등 원인은 어머니의 남성중심의 가부장제 의식 때문이다. 오빠들의 죽음으로 인한 어머니와 딸의 갈등 관계는 전쟁 체험을 다룬 소설에서 중요한 모티프로 나타난다.

『나목』의 어머니는 과거 회상(14)에서 보면 남편이 살아 있을 때는 생기 있고 자신의 외모에도 관심을 갖던 여인으로 묘사되고 있지만, 남편이 죽은 후에는 가장의 상실로 실의에 빠져 생의 의욕을 상실한 인물로 형상화되고 있다.

전쟁 중에 두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모든 의욕을 잃은 상태이다. 그녀의 삶은 6·25라는 한정된 시간 속에서 정지되었다. 삶의 의미를 오로지 아들에게서만 찾았던 어머니는 살아남은 딸의 존재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갖지 않는다.

“어쩌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들들은 뭉땅 잡아가지고 계집애만 남겨 놓으셨노.” 나는 비실비실 일어섰다. 간신히 안방 미닫이를 열고 대청으로 나왔다. 시야가 부엌에 흐려 보였다.³¹⁾

이런 어머니의 말은 주인공 경아에게 자신이 오빠들을 죽게 한 장본인이라는 피해의식을 심어준다.³²⁾

찬마루 위 천장에 …… (중략) …… 판자의 한쪽을 뜯어내어, 감쪽같이 훌륭한 방을 꾸몄다. 라디오와 기타와 전기 스텐드에 책까지 비치되었는데도 그들은 거기에 폭 배겨 있지 못했다. 그들은 하루에도 몇 번이고 천장을 오르내렸다. 전쟁이 낫대서,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들의 버릇에 신통한 변화가 생길 리 만무했다. 신나는 뉴스를 들었다고 어머

31) 위의 책, p. 230.

32) 작가는 어머니로부터 이런 말을 실제로 들었다고 말한다 (박완서, 『나는 왜 작은 일에 분개 하는가』 햇빛, 1990, p. 212).

니에게 보고하러, 군것질거리를 찾아서, 담배를 피우러, 찬물에 발을 담그러 그들은 분주히 오르내렸고, 그들의 발랄한 젊음은 그만한 운동을 안 하고는 못 배웠다. (중략) 어머니는 또한 매일 드나들다시피 하는 인민반장을 가장 무서워했다. 남자의 신발은 모조리 치우고 하다못해 빨래까지도 남자들 것은 방구석에서 말리는 등 한시도 마음을 못 놓는 것도 다 인민반장 때문이었다. (중략) "사내 자식이 이거 할 노릇인가, 국군만 들어와 봐라, 단박에 입대해서 분풀이를 싣껏 해줘야지." (중략) 폭격이 한결 잦아지고 포성이 밤낮없이 들리기 시작했다. (중략) 포소리가 가까이 들리다 못해 이제는 막 머리 위를 날기 시작했다. 포탄과 공기가 스치는 소리가 날카롭게 신경을 건드렸다. 그것은 건디기 힘든 소리였다. <쌔-앵>하는 소리가 길게 어미를 끌다가는 반드시 우르르쾅 하는 파괴음으로 끝을 막았다. 폭격은 밤낮없이 계속되고 마침내 지상의 화염이 하늘까지 불게 물들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도시는 불은 치하에 있었다. 전쟁이 6·25 때처럼 쉽게 머리위를 지나지 않고, 오래오래 머리위에 머물면서 그 광기의 극을 다하고 있었다. (중략) 검붉게 물든 호칭, 군데군데 고여 있는 검붉은 선혈, 여기저기 흩어진 고깃덩이들, 어떤 부분은 아직도 삶에 집착하는지 꿈틀 꿈틀 단말마(斷末魔)의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 싱싱한 젊음들이 어찌면 저렇게 무참히 해체될 수 있을까?³³⁾

큰아버지가 몇 번 다녀가더니 아들만 피난보내기로 합의한 후 찹쌀로 미숫가루를 만들도 김밥도 싸고 마른반찬과 내복도 챙겨 커다란 피난 짐 세 개를 만드느라 어두워졌다. 큰집, 작은집 아들들 넷이 친구집과 친척집에 인사 다니느라 그만 한강을 못 건너고 만 것이다. 포 소리가 밤낮없이 심해지고 찬마루 위 천장에 꾸민 방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 내가 오빠를 그리 숨게 했으나 바로 그 지붕에 폭격을 맞은 것이다.

오빠들을 그리로 보내요. 거기가 더 안전할 것 같아요³⁴⁾

나는 사루비아를 좋아했다. (중략) 물끄러미 창밖의 사루비

33) 박완서, 『나목』, 앞의 책, pp. 218~225.

34) 위의 책, p. 218.

아를 바라보다가 혼곤하게 낮잠에 빠지곤 했다. 그리고 나는 불디불은 호청을 꿈꿨다. 피 묻은 호청에 휘감기는 악몽은 매일 낮 계속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뒤따랐다.³⁵⁾

어머니의 남성중심적인 의식은 주인공 경아가 여성으로서 자신의 존재감에 대해 고민하는 원인이 된다. 이런 피해의식은 외부적 폭력으로 인한 가족 상실의 비극성을 내포하며 6·25전쟁 직후의 현실상황은 주인공 경아와 옥희도, 어머니를 통해 나타난다.

나는 캔버스 위에서 하나의 나무를 보았다. 섬뜩한 느낌이었다. 거의 무채색의 불투명한 부연 화면에 꽃도 잎도 열매도 없는 참담한 모습의 고목이 서 있었다. 그뿐이었다. 화면 전체가 흑백의 농담으로 마치 모자이크처럼 오돌도돌한 질감을 주는 게 이채로울 뿐 하늘도 땅도 없는 부연 혼돈 속에 고목이 괴물처럼 부유하고 있었다.³⁶⁾

박완서는 이 작품의 인물인 옥희도는 고(故) 박수근 화백이 모델이라고 밝히고 있다. 옥희도는 전쟁으로 인해 불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예술가로 설정함으로써 전쟁의 아픔과 피해해진 삶을 고발하고 있다. 옥희도의 전쟁 직후의 현실은 미군들이 주문한 애인 초상화나 그려 줄 수밖에 없는 암담한 상황이었다.

내가 지난날, 어두운 단간방에서 본 한발 속의 고목(枯木), 그러나 지금의 나에겐 웬일인지 그게 고목이 아니라 나목(裸木)이었다. 그것은 비슷하면서도 아주 달랐다. (중략) 봄에의 믿음, 나목을 저리도 의연하게 함이 바로 봄에의 믿음이리라. 나는 홀연히 옥희도 씨가 바로 저 나목이었음을 안다. 그가 불우했던 시절, 온 민족이 암담했던 시절, 그 시절을 그는 바로 저 김장철의 나목처럼 살았음을 나는 알고 있다.³⁷⁾

위의 고목(枯木)과 나목(裸木)은 모두 경아에게 보여진 옥희도의 모

35) 위의 책, p. 226.

36) 위의 책, p. 195.

37) 위의 책, pp. 284~285.

습이다. 즉 전쟁이라는 상황은 경아와 가족들을 불행하게 만든 원인이었으며, 화가인 옥희도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처지로 만들기도 했다.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경아의 갈등은 차츰 없어져 간다. 그것은 경아의 앞날에 믿음을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기에 희망적이라 할 수 있다. 옥희도의 유작(遺作) 전시회에서 경아가 느낀 것은 예전에 자신이 보았던 부원 무채색의 고목이 아니라 봄에의 믿음을 간직한 나목인 것이다. 그것은 암담한 시대를 한 점의 희망으로 보려는 작가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에서 박완서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인물들이 절망하면서도 거기에서 어떤 희망을 발견하고 살아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빠의 죽음으로 인한 피해의식과 상처는 박완서에게 가장 비극적 체험으로 각인되었고, 결국 그로 인해 어머니와 딸의 대립과 갈등 모티프들은 여러 소설 속에 다양하게 형상화된다.

만두를 먹고 싶다는 게 단순한 식욕뿐이었을까? 식욕보다는 훨씬 절실한 것, 목탄 나무의 단비에의 갈구 같은, 자해에의 애타는 소망에 그토록 굳게 잠길 수가 ... 남도 아닌 내 어머니가, 육친이라서 주저되던 어머니에 대한 미움이 인내의 한계를 넘어서서 폭발했다.³⁸⁾

경아는 어머니와 식사하면서 자신이 학대받는다는 것을 의식한다. 음식을 준비해서 함께 먹음으로써 가족 간의 사랑과 유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따뜻한 식사를 상실한 경아는 채울 수 없는 허기증에 시달리게 된다. 경아의 만두에 대한 식욕은 어머니의 사랑에 대한 요구이다. 어머니가 맛있고 따뜻한 음식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경아가 어머니로부터 소외당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 이상 애정이나 의무로 묶이지 않은 가족은 이미 가족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나목』에서 보여주는

38) 위의 책, p. 110.

여러 모티프들은 이후 박완서의 다른 작품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용되어 나타난다.

『목마른 계절』에서는 동족이 하루아침에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적이 되어 총칼로 생명을 위협하고 이웃들이 서로 믿지 못해 적과 내편으로 갈리는 각박한 세상으로 변한다. 중립적인 하열이 탈출하던 중 대량 학살의 수많은 시체더미를 보고 이념의 현장에서 도망쳐 폐인이 되어간다. 전쟁의 광기는 인간다운 본성마저도 상실하게 만들었고 가족들의 아픔을 더욱 가중시켰다.

3. 가족 붕괴와 단절

『목마른 계절』은 1972년 작가가 42세 되던 때에 「한발기」로 『여성동아』에 연재되었고, 1987년 수문서관에서 『목마른 계절』로 출판된 작품이다. 6·25전쟁이 일어난 1950년 6월부터 그 다음해 5월까지 한 해 동안에 일어났던 일을 달마다 나누어 엮어 10장으로 구성된 장편 소설로, 작가 자신의 6·25체험이 직접적으로 형상화된 작품이다. 소설은 서울 돈암동과 현저동을 공간적 배경으로 전개된다. 1950년 봄에 향아와 진이의 B고녀의 졸업식 날을 그리면서 6월부터 시작되는데 하진과 오빠인 하열의 가족이 극단화된 이데올로기의 대립으로 고통 받는 모습이 형상화된 작품이다. 주인공 하진은 박완서 자신이라 할 수 있다.

이 작품은 전쟁의 현장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하진이 S대학에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전쟁이 나면서 도시는 파괴되고 대학의 기능도 상실된다. 6월 25일 일요일, 하진의 오빠 하열이 능곡에 있는 학교 농원에 모내기하러 집을 나간 후 38선 전역에 괴뢰군이 남침했다는 뉴스를 듣게 된다.

아침부터 폭격의 굉음이 유리창을 간단없이 흔들고, 남산 너머에서 치솟던 검은 연기가 노을처럼 불길한 오렌지 빛으로 변하면서 숨 막히게 더운 날이 시작된다. 폴포기 하나 없이 사막처럼 무묘하게 펼쳐진 드넓은 공간을 사이에 두고 저만치 우뚝 솟은 본관 건물에서 서너 명의 인민군이 뛰어 나오더니 이미 폭격을 끝내고 유유히 남쪽으로 기수를 돌린 폭격기의 편대를 향해 각자의 소총을 겨누고는 계속해 쏘아댄다. 무모하고 유치한 행동 같으면서도 그들의 몸짓에는 아무도 웃어넘길 수 없는 격렬함과 날이 선 적의가 노출돼 있다.³⁹⁾

전쟁은 한순간에 도시의 건물들을 파괴했을 뿐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마저도 메마르고 피폐하게 만든다. 전쟁이 길어질수록 폭격으로 거리는 무질서해지고 도시는 황폐화되어 모든 기능이 마비된다. 도시인들이 모두 피난을 떠난 후 아침저녁으로 들리는 대포 소리만이 여전하다.

낮에는 낮대로 각종 전쟁의 무기들이 요란스럽게 머리 위를 오가고 지척에서 터지고 무너지고 하느라 고막이 터질 듯한 가운데도 진이는 문득문득 견딜 수 없는 적막감에 사로 잡혔다.⁴⁰⁾

그녀는 어느 틈에 유화진이나 현민처럼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일을 순진하게 경악하며 그 일에 몸을 담기를 꺼리게 될수록 그 일에 방관자이기를 바라는 이른바 자유주의 근성이 농후한 몇몇 중의 한 사람이 돼 가고 있었다. 결국 그녀는 의당 투쟁 경력이 있는 자가 몸담아야 할 열성적인 중추세력으로부터 곁돌고 있었다.⁴¹⁾

등교한지 일주일이 넘었건만 아직 한번의 강의도 없었거니와 교수들의 얼굴 한 번 본적이 없었다. 학원은 완전히 학생들의 것이었다. 교양시간이란 것이 매일 있었지만 민청위원장과 문화 선전부장이 교대로 교양을 맡고 있었고 교재는 신문이 주였다.⁴²⁾

39) 박완서, 『목마른 계절』, 세계사, 1994, p. 97.

40) 위의 책, p. 155.

41) 위의 책, p. 83.

42) 위의 책, p. 61.

6·25 발발 후 대학의 모든 건물이 인민군에 의해 점령당한다. 따라서 수업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다. 한다고 해도 교수들이 아닌 민청위원장이나 문화선전부장이 인민군 총사령부의 보도나 사회주의 혁명에 대한 강의를 할 뿐이다.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사람들은 도시를 버리고 모두 피난을 떠난다. 텅 빈 죽음의 도시에는 하진의 가족만이 남아 있을 뿐이다.

도대체 이웃에고 거리에고 인기척이라곤 없기 때문이다. 문틈으로 빠끔히 내다본 한길엔 사람들의 왕래가 며칠째 완전히 끊기고 담 너머론 아기들의 울음소리조차 들리지 않고 해 저문 창엔 등불도 없다. 고도(孤島)에 유배된 듯한 절실한 고독감 속에서 우리 식구만이 서울에 살아남은 마지막 사람이 아닐까 두려운 회의를 해보지만 그것을 확인할 길 또한 없다.⁴³⁾

사람으로 넘쳐야할 도시는 모두가 피난을 떠난 후 더 이상 도시공간의 기능을 상실했고, 텅 빈 도시에 우리만 남았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감을 주었다.

역신(疫神)이 지배하는 거리, 그러면 진이네는 무엇이란 말인가? 악역을 면할 수 있었던 행운아들? 아니다. 역신조차 외면하는 지옥으로 가는 축에서조차 따돌림을 당한 저주(咀呪) 받은 족속인 것이다. 설사 살아남은 것이 신의 은총을 거부하고라도 여럿이 함께 지옥으로 떨어져 가고 싶은 것이다. 진정코 지옥에서라도 여럿이 함께 있고 싶은 것이다. 사람 그리움, 혼자라는 두려움, 이런 것은 밤일수록 더했고, 가족끼리 이런 외로움에 서로 조금치의 도움도 될 수 없었다.⁴⁴⁾

전시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어떻게든 살아남는 것이었다. 모든 것이 파괴된 전시 상황에서 살아가는 『목마른 계절』의 인물들은 점점 인간

43) 위의 책, p. 155.

44) 위의 책, pp. 214~215.

성마저 상실되어 간다. 가령, 작중 인물인 하진은 전쟁 상황 속에서 생존을 위해 남의 집에서 필요한 물건들은 모두 뒤져서 가져다가 요긴하게 쓰고 있었다.

하룻밤에 한 집, 어떤 날은 두서너 집까지도 뒤졌다. 옛장수 집도, 미쟁이 집도, 목수집도 있었다. 물론 무엇을 해 먹고 살았는지 분명치 않은 집이 더 많았고, 애들이 여럿 있었던 것 같은 집도 그렇지 않은 집도 있었다. 그러나 한결같이 사람 없는 빈집이면서도 이상하리만큼 생생한 사람들의 생활의 모습이 있었다. …… (중략) …… 그녀는 훨씬 덜 외로워지고 명랑해졌다. 많은 친구를 가까운 곳에 가지고 있는 듯한 착각은 착각이라기엔 너무도 호뭇했다. 밀가루도, 밀도, 보리쌀도, 쌀까지도 생겼다. 인제 더 이상 도둑질을 나설 아무런 명분도 없었다. 그래도 여전히 밤 그맘때가 되면 진이는 설레이고, 흠금흠금 눈치를 보다가 집을 빠져나오고 마는 것이었다.⁴⁵⁾

환한 빛 속에 펼쳐질 어떤 식구들의 생활의 단면(斷面), 갓 잘라 낸 나무의 단면에서 싱그러운 수액이 흐르듯이 인간들의 생활의 냄새를 질게 풍기는 선명한 단면들, 그녀는 벌써 먹을 것을 구하는 일 따위는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⁴⁶⁾

모두가 떠나 버린 서울 안에서 먹을 것이 떨어지면 빈집털이를 시작한다. 반대하던 언니도 어린 조카와 다리에 부상을 입은 오빠를 굶길 수 없다는 이유로 도둑질을 하게 된다.

“도둑질을 나갑시다. 오늘밤에라도.” “도둑질 늦었어요. 저 아래 웬만한 집들은 인민군들이 벌써 다 해먹은걸요. 집집마다 대문이 활짝 열리고 온통 난장판을 만들어 뒀어요. 그놈들이 눈 온 날이면 들쓰고 다니는 홀이불도 다 그렇게 남의 집 이불 호칭 뜯어낸 건데요? 뭐 먹을 것이 남았을 게 뭐예요. 녀석들 지껄이는 소리 못 들었어요? 도둑질을 뭐라드라 - 응, 보급공작이라고, 내 기가 막혀서, 보급공작 나갑시다 하고 떼로 몰려

45) 위의 책, p. 229.

46) 위의 책, p. 233.

다니며 도둑질을 해댄 끝에 웬 우리 먹을게 남았을라구요.”…… (중략)
 …… “글쎄 할 만한 집이 없대두요. 진작에 했으면 몰라도…….” “별수
 있수, 그놈들이 남겨 놓 거나 해먹을 수밖에……”…… (중략)…… 열
 은 자는 듯이 드러누워 있었으나 숨결이 고르지 못하고 미간이 어둡게
 찌푸려지더니 길게 한숨을 내뿜고 돌아눕는다. 아내와 누이의 도둑질 모
 의를 못들은 척 넘길 수밖에 없는 난처함을 그도 괴로워하고 있는 것 같
 았다. 마지막 조죽으로 저녁을 치르고 나서도 열은 줄곧 말이 없었고 이
 러한 남편의 발치에 우그리고 앉아 혜순은 꿈쩍도 하려 들지 않았다.⁴⁷⁾

서울 장안의 식량난은 말이 아니었다. 싱거 미싱이나 벨벳치마를 몇 줌
 의 쌀로 바꾸기 위해 사람들은 기총소사나 폭격을 무릎 쓰고 근교의 시
 골로 잇따랐고, 밥을 먹는 집은 죽을 먹는 척, 죽을 먹으면 굶는 척해가
 며 행여 여뒤통 놓은 식량을 누구에게 빼앗길세라 서로 허기증을 과시했
 다. 허기증은 역병처럼 굶지 않는 사람들까지 몰아 너나없이 먹기에 치
 사해졌다.…… (중략)…… 아귀들의 잔치 같은 맹렬하고 아쉬운 먹기
 가 끝나면 당숙모는 으레 서 여사에게 귀엣말로 이남방송으로 들었다는
 뉴스를 전하는 것을 잊지 않았다. 그때의 당숙모의 눈은 한층 생기 있게
 변들었다. “형님 조금만 더 참아요. 미국말고도 별의별 나라가 다 우리나
 라를 도와준대요. 저 비행기 좀 봐요. 그까짓 탱크, 흥 며칠 안 남았어
 요.”⁴⁸⁾

전쟁 기간 동안 무채색만을 보다가 원색의 비단옷을 보게 되면서 혼
 란을 겪게 된다. 저녁이 되어도 불이 밝혀지지 않은 집들과 폭격으로
 파괴된 도시의 건물들은 본색을 상실한 암담함을 주었다. 빛, 색채, 온
 기, 사랑, 기쁨들이 평화의 속성이라면, 어둠, 무채색, 추위, 미움, 절망
 등은 전쟁과 살육의 세계를 나타내듯이 전쟁으로 황폐화된 서울은 전쟁
 과 살육의 세계라 할 수 있다.

“갑회, 극장 구경하고 싶지 않아? 노래하고 춤추고 하는 구경 말야” “어

47) 위의 책, pp. 224~225.

48) 위의 책, p. 80.

머나 구경? 군관 아저씨도 거짓말, 지금 극장이 어디 있다고” “왜 없어, 여긴 인민공화국이야. 인민공화국에 예술이 없대서야 말이 되나. 갑희만 좋다면 오늘밤 기막히게 좋은 구경을 시켜 주지. 그 대신 진이 언니하고 같이 가야 돼” …… (중략) …… 그녀를 매혹시킨 건 노래가 아니라 오래간만에 보는 고운 옷인 것 같았다. 얼마나 오랫동안 흰색과 흑색으로만 시각을 확대했던가. 비단의 윤택과 원색의 찬란함이 주는 쾌감은 오랫동안 잊었던 여성다운 정감을 불러일으킨다.⁴⁹⁾

폭격으로 파괴되고 사람이 떠난 도시는 무인의 도시로 변하게 된다. 도시는 다채로운 색채를 상실한 암담하고 참담한 곳으로 변해 버린 것이다. 하지만 주인공들은 파괴된 도시에서 삶의 희망을 찾으려 노력한다. 전쟁은 도시의 외형을 바꾸어 놓았고 도시인의 내면도 파괴하게 한다.

“전쟁으로 인해 생존의 위협을 받는 현장에서 이데올로기의 선택은 빨갱이와 흰둥이로 구별되어 인간의 잔인한 본성을 드러내는 동기”⁵⁰⁾가 되고 절망감에 빠진 도시인들은 두 부류로 사람을 구분하면서 서로를 경계하게 된다.

드디어 오늘 낮에 형님 아우님 하고 두텁게 지내던 은행집 마나님을 찾아 갔었다. 무어 잘못 한 것이 있으면 썩썩 빌기라도 하고 그 전 이웃이 되고 싶어서였다. 번연히 서여사의 목소리를 알아들었으련만 몇 번이고, ‘거 누구요? 소리를 하다가 한참만에야 문을 뚝뚝 열고 내다본 마나님은 얼굴이 새침하니 웃지도 않고, ‘왜 오셨수’ 첫마디가 곱지가 않다. ⁵¹⁾

빨갱이 가족으로 낙인이 찍힌 진이 가족은 사이 좋게 지내던 이웃에게 냉대를 당한다. 인심 좋던 사람들은 폭격으로 파괴된 도시처럼 메마르

49) 위의 책, pp. 239~242.

50) 백지연, 「폐허속의 상징」, 『박완서 문학 길 찾기』, 세계사, 2000, p. 263.

51) 박완서, 『목마른 계절』, 앞의 책, p. 66.

고 흥흥해졌고, 서로가 불신하게 되면서 이웃까지 고발한다.

수도(首都)는 철통같이 방위되어 있으니 안심하라는 빈 목소리만 남기고 귀하신 몸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미리미리 도망쳐 버린 비열하고 파렴치한 배신에 대해선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다만 무자비한 복수만을 허용했다. 고발과 복수는 도처에서 횡행하고 경찰서다 헌병대다 특무대다 청년단이다 다 나서서 부역자(附逆者)를 잡아들이고, 심문하기 전에 고문부터 하고, 고문하기 전에 죽이기부터 하는 일이 비일비재인 혼란의 몇 날이 계속 되었다.⁵²⁾

전쟁 당시 파괴된 도시속에 한 가족의 모습을 『목마른 계절』이 그리고 있다면 『나목』은 전쟁직후의 한 가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 작품의 주인공 하진은 『나목』에서 경아처럼 방황하는 젊음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하진의 방황은 그녀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다. 여기서는 민준식이라는 인물이 중요하게 개입한다. 부잣집 아들인 민준식은 진이친구인 향아와 정략적인 약혼을 한다. 그러나 전향한 민준식은 그 어느 편에도 동조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은 1982년 1월부터 1983년 1월까지 한국일보에 연재되었던 이 장편소설로 수철, 수지, 수인 세 남매의 이야기이다. 수지와 수철은 전쟁 상황 중에서 한 개의 고구마를 빼앗기는 것이 아까워서 아무도 모르게 동생을 내버렸다. 그 후 남을 의식해서 동생을 찾았지만 신분이나 계층 간의 허위의식으로 인해 오목이를 인정하지 못한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비추어볼때 이산가족의 재결합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주는 소설이다. 작가는 사회의 모순과 사회 구조가 이들의 재결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그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들 인간의 이기심과 허위의식이 이산가족의 결합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

폭격으로 파괴되고 사람이 떠난 도시는 무인의 공간으로 변하게 된

52) 위의 책, p. 169.

다. 도시는 다채로운 색채를 상실한, 암담하고 참담한 곳으로 변해 버린 것이다. 하지만 주인공들은 파괴된 도시에서 삶의 희망을 찾으려 노력한다.

이렇듯 전쟁은 도시의 외형을 바꾸어 놓았고 도시인의 내면도 파괴하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국민을 끝까지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저버린 채 도망하더니 다시 수도로 돌아와서도 국민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조차 없었다. 오발 사고로 다리에 부상을 입은 오빠 때문에 피난을 가지 못한 『목마른 계절』의 진이 가족은 이웃의 눈을 피해 H동으로 가짜 피난을 떠난다. 세상이 좀 잠잠해 지면 피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하기 위해서이다. 파괴된 도시의 집을 버리고 피난을 떠난 사람들의 빈집을 뒤져 먹을 것을 구하겠다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도덕심마저도 저버린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의 기능이 마비된 상태에서 진이가 먹을 것을 구할 수 있는 그 당시의 유일한 방법은 남의 빈집을 터는 것밖에 없었는지도 모른다. 전쟁 당시 파괴된 도시 속에 한 가족의 모습을 『목마른 계절』이 그리고 있다면 『나목』은 전쟁직후의 한 가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것은 전쟁 상흔으로 많은 사람들을 암담하게 했던 시절에 인간다운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 작가의식의 반영이었다. 작가가 추구하는 바는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에서도 나타난다. 이들 인간의 이기심과 허위의식이 이산가족의 결합 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을 작품을 통해 알 수 있다.

이처럼 박완서 문학은 전쟁으로 인한 전쟁체험을 소설로 드러냈으며, 그 중에서도 전쟁을 배경으로 한 소설에서 가장이 없는 가족들의 피해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나목』은 남성상실로 경아가 P·X 매장에서의 가장역할을 하며 『목마른 계절』에서는 두 오빠를 잃은 가족상실과 『엄마의 말뚝 2, 3』에서는 살아남기 위해 저질러진 인간성 상실의 문제는 내면세계가 파괴되어 가족이 붕괴되고 단절되었음을 볼 수 있다.

오빠들을 그리로 보내요. 거기가 더 안전할 것 같아요⁵³⁾

나는 사루비아를 좋아했다. (중략) 물끄러미 창밖의 사루비아를 바라보다가 혼곤하게 낮잠에 빠지곤 했다. 그리고 나는 불디불은 호청을 꿈꿨다. 피 문은 호청에 휘감기는 악몽은 매일 낮 계속되고 잠 못 이루는 밤이 뒤따랐다.⁵⁴⁾

큰아버지가 몇 번 다녀가더니 아들만 피난보내기로 합의한 후 찹쌀로 미숫가루를 만들도 김밥도 싸고 마른반찬과 내복도 챙겨 커다란 피난 짐 세 개를 만드느라 어두워졌다. 큰집, 작은집 아들들 넷이 친구집과 친척집에 인사 다니느라 그만 한강을 못 건너고 만 것이다. 포 소리가 밤낮없이 심해지고 찬마루 위 천장에 꾸민 방이 제일 안전한 것 같아 내가 오빠를 그리 숨게 했으나 바로 그 지붕에 폭격을 맞은 것이다.

『엄마의 말뚝 2·3』은 민족 분단이나 전쟁의 문제를 다룬 작품이다. 그런데 단순한 분단과 전쟁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과 결부된 여성들의 체험과 관련된다. 일단 여성들만 살아남는다는 것, 가정 내의 남성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부재하게 되는 ‘말뚝’은 남성 가장이 없는 집을 만들어내는 비극의 문제성이 부각된 작품이다. 이로써 작가의 6·25전쟁 체험이 가장 직접적으로 형상화된 『나목』과 『목마른 계절』의 작품에서 전쟁의 실상이 구체적으로 다루어진 작품을 중심으로 작가의 가족사적 아픔, 그리고 분단가족의 피해의식이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나목』은 서사 구조 분석을 기초로 인물들의 황폐화된 삶과 피해의식을 볼 수 있다. 이들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서 전쟁 상황으로 겪게 되는 모습이 잘 드러나 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에서는 대립적 상황에 놓여 있는 인물들의 구조를 통해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상처와 재결합 문제를 작가가 어떻게 모색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53) 위의 책, p. 218.

54) 위의 책, p. 226.

『목마른 계절』이 작품은 전쟁의 현장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사람으로 넘쳐야 할 도시는 모두가 피난을 떠난 후 하진의 식구만이 남아 두려움과 공포감을 더했다. 먹을 것이 떨어지면 부상당한 오빠를 굶길 수 없다는 이유로 빈집털이를 한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수철과 수지는 전쟁 중에 한 개의 고구마를 뺏기는 것이 아까워서 동생 오목이를 내버린다. 남을 의식해서 찾긴 했어도 오목이를 인정하지 못한다. 『나목』은 6·25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가족을 상실한 어머니와 경아 그리고 전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된 화가 옥희도의 대립관계로 나타난다. 당시의 시대적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미술가를 통해 고목으로 보이던 나무가 안정된 상황에서는 나목으로 보여 지고 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인간의 이기심과 허위의식이 이산가족의 결합문제를 어렵게 하고 있다.

『엄마의 말뚝 2·3』은 살아남기 위해 저질러진 인간성 상실의 문제는 내면세계의 파괴로 가족이 붕괴되고 단절되었음을 볼 수 있다.

III. 사회적 차원으로의 분단문제 형상화

박완서의 작품은 왜곡된 현대사의 출발점인 한국전쟁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그의 작품에는 전쟁의 참혹한 기억에 사로잡혀 고통 받는 개인의 자전적 모습을 그리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모습을 통해 6·25전쟁으로 상처받은 삶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탐색하게 된다. 이러한 탐색은 상처받은 개인의 내면을 한풀이에 그치지 않고 개인과 역사 속에서 문제들을 접근하려는 시도로 확대된다.

6·25한국전쟁은 전쟁을 체험한 당시의 모든 이들에게 치유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전쟁이후 분단으로 인해 남북은 각기 다른 방향으로 사상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단일화되면서 전쟁으로 인한 상처의 치유는 요원한 일이 되었다. 전쟁으로 인한 사회적, 계급적 변화는 남한의 자본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성장하게 한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⁵⁵⁾

박완서의 작품이 발표되기 시작한 70년대는 한국전쟁과 분단으로 남한의 자본주의가 고도의 성장을 이루는 시기였고, 그런 성장 속에서 작가가 전쟁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 할지라도 그의 의식까지는 완전히 치유할 수 없었다.

박완서는 전쟁의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기도 전에 사회를 지배하던 70년대의 상황을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속물성과 현실적 모순을 문학적으로 연결시키고 있다. 그의 작품에서 지속적으로 드러나는 전쟁 상처의 기억들은 단지 치유되지 못한 상처이기보다는 각인된 현실의 모순을 끊임없이 환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박완서는 70년대 초반에 자신이 체험한 전쟁의 상처를 그리는데 주목하였고, 중반부터는 전쟁이 가져다준 모순을 현실의 문제와 연결시키는 작업을 하였다. 그

55) 주대환, 『진보정치의 논리』, 현장문학사, 1994, pp. 123~125.

러나 70년대 말부터 80년대를 거쳐 90년대 중반까지는 작가 인식의 한 계에서 벗어나 분단현실에 대한 본격적인 관심을 보이게 된다.⁵⁶⁾

이것은 그가 작품 속에서 암울했던 상황에서 전쟁을 바탕으로 고통 받는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실향과 이산으로 인한 분단문제를 사회적 차원의 문제로 확산시켜 접근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80년대 중반의 우리 문학에서 본격적인 분단 극복의지를 담은 「엄마의 말뚝 2, 3」,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에서 분단문제와 통일의 문제가 어떻게 사회적 차원으로 형상화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분단으로 인한 피해의식

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상실한 모녀의 상처와 분단의 폭력성에 도전하는 인물이 형상화된 『엄마의 말뚝 2, 3』은 분단과 이산문제를 다룬 작품으로 분단가족의 고통이나 민족적 고통을 그린 소설로 전쟁의 폭력성이 가져온 가족상실의 상처를 이들 모녀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은 일인칭 시점으로 자기의 이야기를 서술하고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나는 사건은 내가 집을 비울 때마다 일어난다. 이 섬뜩한 예감은 내가 밖에 나가 있으면서 한번도 집 생각을 하지 않을 때만 일어난다. 어느 날 어머니가 손자들의 눈 치우는 것을 거들다가 다리를 다치는 나의 섬뜩한 예감이 어김없이 적중했다. 그러나 나는 다친 사람이 내 자식들이 아니라는 것에 안심하고 단잠에 빠진다. 어머니는 다리뼈를 잇는 수술을 해야만 하는데 거부를 한다. 그 이유는 어린 시절 오빠와 ‘나’가 어머니의 부러진 뼈를 고치기 위해 ‘산골’을 찾아 헤매던 기억과 연결시켜 생각한다. 결국 어머니는 수술을 했고, 그날 밤 무섭게 발작을 일으킨

56) 『엄마의 말뚝 2』(1981)의 작품을 통해 분단현실의 접근과 사회계층의 간극이 분단현실의 고착화에 얼마나 깊이 관여되어 있나를 그린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1983)의 작품을 통해 분단현실과 계층문제의 모순을 보여준다.

다. 어머니의 의식은 오빠가 죽었던 6·25 당시로 돌아가 인민군에게 오빠의 목숨을 살려 달라고 애걸하는 환각증세를 보이고 있다. 오빠의 죽음에 대한 기억은 몇 십 년이 지나도 자신의 한 쪽 다리를 아들로 착각하는 몸짓을 한다. 이로써 이 작품은 전쟁으로 인한 피해의식이 어머니의 환영을 통해 악몽처럼 재연되어 나타나고 있다.

어머니의 손이 사방으로 더듬었다. 그러다가 붕대 감긴 자기의 다리에 손이 닿자 날카롭게 속삭였다. “가엾은 내 새끼 여기 있었구나, 꿈쩍 말아, 다 내가 당할 테니” 어머니의 떨리는 손이 다리를 감싸는 시늉을 했다. 그때부터 어머니의 다리는 어머니의 아들이었다. 어머니는 온몸으로 그 다리를 엄호하면서 어머니의 적을 노려보았다. 어머니의 적은 저승의 사자가 아니었다. “군관 동무, 군관 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어머니의 눈의 푸른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나는 어머니가 환각을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 차렸다.⁵⁷⁾

어머니는 오빠의 시신을 태운 한 줌의 가루를 개풍군 고향 땅이 보이는 곳에 흩뿌리면서 분단을 강렬하게 거부하는 몸짓을 보이고 있다. 「엄마의 말뚝 2」는 전쟁의 후유증으로 인해 분단 가족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특히 현재 사건과 과거의 회상이라는 구성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가족사적 상처와 분단의 폭력성, 그리고 분단극복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박완서는 이 작품이 작가의 수상연설에서 ‘미처 참아내지 못한 통곡’⁵⁸⁾이라고 밝혔듯이 엄마와 딸의 ‘상처치유’인 동시에 ‘상처 덧나기’ 소설⁵⁹⁾이다. 어머니는 이런 ‘거역’을 통해서 개인의 상처가 역사적 상처라는 사실로 분단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된다. 그것은 오빠의 죽

57) 박완서, 『엄마의 말뚝』, 세계사, 1994, pp. 94~95.

58) 박완서, 「이상문학상 수상 연설」, 『문학사상』, 1980. 9, p. 160.

59) 안숙원, 「『엄마의 말뚝 1, 2, 3』 연작소설과 모녀관계의 은유/ 환유 체계」, 『한국문학과 모성성』, 태학사, 1998. p. 212.

음을 가져온 일차적 원인이 분단에서 비롯된 것이며, 이런 분단 상황이 극복되지 않는다면 역사적 고통이 되풀이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작품에서 현재의 사건이 어머니와 관련된 것이며, 회상에 대한 동기는 오빠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것은 다른 작품에서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의 사건을 통해 오빠의 죽음을 회상하는 것은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폭력성을 고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 고통의 시간 속에서 상처가 아문 것처럼 보이지만, 그 내면은 상처가 치유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폭발할 수 있다. 이런 근본적인 것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그 치유는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작품은 역사적 비극과 전쟁으로 인한 폭력성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가족상실에서 오는 분단의 피해의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엄마의 말뚝 2」가 어머니의 분단극복의지에 초점을 맞춘 반면, 「엄마의 말뚝 3」은 어머니의 죽음에 의미를 부여하는 딸의 의식에 초점을 두고 있다.

어머니는 잃어 버린 고향과 처참하게 죽어간 아들을 느낄 수 있는 강화도 최북단을 일 년에 한두 번은 꼭 찾아가서 휴전선 넘어 그 고향을 오래도록 바라보며 분단에 대한 거역의 몸짓을 해온 것이다. 그만큼 분단으로 인한 어머니의 상처는 크고 깊은 것이다. 「엄마의 말뚝 1」에서 현저동 근처 성벽에서 휴전선(休戰線)을 연상하는 장면이나, 「엄마의 말뚝 2」에서 어머니와 딸이 오빠의 뺨가루를 휴전선이 있는 강화도 앞바다에 뿌리는 행위, 「엄마의 말뚝 3」에서 화장을 해서 뿌려달라는 유언 등의 동어반복적(同語 反復的)인 주제는 박완서의 다른 작품에서도 나타난다. 이것은 한 가족의 일시적인 실향의 문제가 반영구적인 민족 분단의 실향민(失鄉民)을 만들어 낸 것으로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님을 보여준다. 그 당시 어머니는 부권상실(父權喪失)의 고통과 6·25라는 혼란기를 겪으면서 어머니 중심의 가족으로 힘겹게 살아나갈 수밖에

없었다.⁶⁰⁾

삼우날 다시 찾은 산소에서 나는 어머니의 성함이 한 개의 말뚝이 되어
꽃혀 있는 걸 보았다. 정식 비석은 달포쯤 있어야 된다고 했다. 말뚝에
적힌 한자로 된 어머니의 성함에 나는 빨려들 듯이 이끌렸다. 어머니의
성함 중, 이름을 따로 뜻으로 읽어 보긴 처음이었다. 참으로 신기한 일이
였다. 어머니는 부드럽고 나직하게 속삭이며 아직도 내 의식 밑바닥에 웅
어리진 자책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다. 딸아, 괜찮다 괜찮아. 그까짓 몸
아무데 누우면 어떠냐. 너희들이 마련 해준 테가 곧 내 잠자리인 것을.
생전의 어머니는 깔끔한 대신 차가운 분이어서 한번도 그렇게 곱살곶게
군 적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생애만큼 먼 옛날의 작명(作名)
이 나에게 그런 위무를 해주고 있었다. 어머니의 함자는 몸기(己)자, 잘
숙(宿)자여서 어려서부터 끝 자가 맑을 숙(淑)자가 아닌 걸 참 이상하게
여겼었다.⁶¹⁾

이처럼 박완서는 전쟁의 참혹한 기억과 고통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나
타내고 있다. 이는 박완서 문학에 있어서 전쟁의 체험과 고통이 아직
끝나지 않은 현대사의 과정 속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엄마의 말뚝 2, 3』은 역사적 차원으로 분단 극복의지를 확대시킨 작
품이다. 즉 전쟁의 폭력성이 가져온 가족상실의 상처를 분단 문제에 대
한 새로운 인식과 함께 강한 분단 극복의지로 나타내고 있다.
이상으로 체험의 소설화를 통한 내면세계의 파괴와 가족단절에서 오는
피해양상들을 살펴보았다.

60) 「엄마의 말뚝」에 나타난 어머니는 여성들을 등장시켜 이데올로기의 대립 양
상을 극복하려는 소설이나 사회적 배경과 연관되는데, 가장의 상실로 생계수단
이 어려워지면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전쟁으로 인해 돌아
오지 않는 아버지 대신 생계를 꾸려야 하는 여인의 모습인 것이다. (유임하,
「분단현실과 서사적 상상력」, 태학사, 1998, p. 253)

61) 박완서, 『엄마의 말뚝』, 세계사, p. 131, 1994.

2. 사회 모순과 병폐로 인한 이중심리

실향과 이산으로 인한 피해의식은 분단으로 고통 받는 이산가족들의 재결합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이 1982년 1월부터 1983년 1월 까지 한국일보에 연재되었던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이다. 이 작품은 수철, 수지, 오목이(수인) 세 남매의 이야기로 수지와 수철은 1951년 겨울의 추위와 굶주림으로 한 숟가락의 밥을 덜어내기가 싫었고, 한 개의 고구마를 빼앗기는 것이 아까워서 아무도 모르게 동생을 내버렸다. 그 후 신분이나 계층 간의 허위의식으로 동생 오목이를 인정하지 못한다. 이는 이기적인 인간성 왜곡의 한 모습으로서 해체된 가족의 재결합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보여준다.

박완서는 이산된 가족을 찾았어도 사회의 모순과 사회 구조가 이들의 재결합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므로 사회적인 분단 극복의지의 측면이 먼저 해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이 작품에는 6·25체험과 가족 해체의 비극이 이 소설 속에서 어떻게 형상화되며 그 가운데 허구적인 진실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 작품의 주된 줄거리는 6·25로 인해 이산가족이 다시 결합하는 과정이다. 이 작품은 전쟁으로 인해 저지른 형제 유기와 죄의식에서 괴로워하는 주인공 심리를 그리고 있으며 한국전쟁에서 비롯된 사회 모순과 병폐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수지는 사회사업가로 대학에서의 아동심리학을 가르치는 한편 여성단체의 회장이 되어 불우이웃을 돕는다. 그러나 속으로는 고아들에 대한 혐오감을 갖고 있다. 즉, 오목이를 버린 죄책감은 있지만 고아 출신인 오목이를 경멸하고 있다. 또한 오목이가 큰 회사의 신입 사원이고 자기의 옛 애인이던 인재와 사귀는 걸 알고서부터 더욱 오목이를 경멸한다. 일곱 살 때 동생을 전쟁터에 유기한 수지는 자신에게도 정신적 외상을 입게 되는데 이런 외상에서 자유로워지려는 수지의 의식은 수지를 괴롭

히게 되며 이중적인 심리와 자기 분열 현상을 보이게 한다.⁶²⁾

오목이가 친동생인줄을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생겨나는 이런 심리적 갈등과 죄책감인 자기 분열 현상은 사물이나 사건의 실체와 그 허상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든다. 수지는 인재의 가난을 미화하여 받아들여려 했을 뿐 결코 가난의 실체를 제대로 보지 못한다. 결국 수지는 돈 많고, 집안 좋고, 학벌 좋은 기욱과 결혼하지만 그의 기대는 허상에 그치고 만다. 수지는 자기기만으로 일관해 오면서도 역설적인 심리상태를 겪는다. 자기에겐 죄가 있다면 일곱 살 때 오목이를 내다버린 것뿐이 아니라 오목이를 찾아내고도 모른 척 한 점을 뉘우친다.

「오목아, 아니 수인아, 넌 오목이가 아니라 수인이야. 내 동생 수인이야.

내가 버린 수인이야.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버린 줄 아니? ...」

이렇게 목멘 소리로 시작해서 길고 긴 참회를 끝냈을 때 수인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러나 수지는 용서받은 것을 믿었다. 수인의 죽은 얼굴엔 남을 용서한 자만의 무한한 평화가 깃 들어 있었으므로,⁶³⁾

오목이의 죽음을 통해 오목이에 대한 자신의 죄책감과 이기심을 참회하는 것이다. 이 참회는 분단의 비극과 지속되는 상처를 방관하는 이산에 담겨진 부정적 사회 심성의 이면을 나타내고 있다. 박완서는 이런 수지의 모습을 통해 분단과 이산에 대해서 이 사회의 기득권자들이 가진 태도가 어떤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수철 역시 오목이를 내다버리지는 않았지만 이를 방관했다는 점에서 수지와 같은 인물에 속한다. 오목이를 찾기 위해 ‘이산가족 찾기’에 광고를 내지만 현재의 화목한 가정이 깨질까 두려워하는 이기적인 인물이다. 이러한 수지와 수철의 행동은 박완서 소설의 근저를 이루는 소시

62) 수지는 문제적 인물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소설에서는 주인공과 세계사이의 뛰어 넘을 수 없는 단절이 있다. 여기에서 수지 자신이 처한 세계 즉 오목이를 버렸다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나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단절된 상태이다.

63) 위의 책, p. 530.

민적 속물근성과 이기주의에 대한 비판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오목이는 수지와 수철과의 대립적 위치에서 버림받고 온갖 시련을 당하는 피해자로 그려지고 있다. 그녀는 형제유기에서 비롯된 전쟁고아로 이중적인 피해자이다. 고아원에서 성은 오씨요 이름은 목이가 되어 언니와 오빠와는 대립적 위치에서 왜곡된 피해의식을 가진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오목이는 자신의 목에 걸린 은표주박 목걸이⁶⁴⁾를 통해 자신이 고귀한 집 자손임을 알고 다른 고아들과는 다르다는 생각을 갖는다. 오누이의 집이 관광업자에게 팔려 문을 닫게 되고, 오목이는 익명의 독지가인 수철을 통해 재수학원에 취직하게 된다. 여기에서 오목이는 입시에 낙방하고 가출한 소녀 미순을 집에까지 데려다 준 것을 계기로 그 집의 가정교사 겸 식모로 입주를 한다. 이런 과정에서 오목이는 버스값을 대신 내준 인재라는 회사원을 사랑하게 되고 그를 통해 신분상승을 꿈꾼다. 그러나 오목이는 수지에게 배신당한 인재의 화풀이 대상이 된다. 그 후 오목이는 수지와 수철과는 다른 차원에서 가지지 못한 피해의식으로의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

「오빠 하는 일이 뭔데?」

「보일러를 만들기도 하고 팔기도 하고 스팀 난방 수도시설을 청부 맡아 공사도 해 주는 점포를 겸한 공장의 기사야. 처음엔 점포하고 공장을 휘뚜루 부는 심부름꾼이었는데 열심히 뛰다 보니 주인 눈에 들었나 봐. 또 그 방면에 소질도 있고 해서 작년부터 기사대우야. 웬만한 공사는 나 혼자 견적내서 시공까지 할 수 있거든. 그 사업이, 너 꽤 괜찮은 사업이다. 앞으로 유망해. 몇년만 더 열심히 뛰면 나도 내 공장을 하나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지금은 기사지만 공장이나 하다못해 구멍가게라도 하나 가져봐. 담박 사장이다 너」⁶⁵⁾

64) 이 작품에서 ‘은표주박 목걸이’는 수지와 오목이가 자매임을 확인시켜주는 중요한 열쇠이다. 전쟁터에 수지는 오목이를 버리면서 채워주었던 목걸이를 통해 수지는 오목이가 자신의 동생임을 확인하게 된다.

65) 위의 책, p. 90.

「세상에 가없어라」 아기를 씻기다 말고 늙은 여자가 이렇게 탄식했다.
「아기를 배고는 그저 잘 먹어야 하는데, 오죽 못 얻어먹었으면 애가 이렇게 비리비리 말랐을까? 이 엘 누가 제 달 채웠다 하겠어? 난 팔삭둥이도 받은 일이 있는데 그 애도 이 애보다는 실향났을걸. 세상에 가없어라」 늙은 여자가 아기를 그녀 옆에 눕혔다. 오목이 보기에다 아기는 너무 작았다.⁶⁶⁾

고아원 출신 일환과 결혼하지만 여덟 달만에 인재의 아이를 낳자 일환은 술과 폭력으로 방황하게 된다. 결국 일환은 오목이가 자신의 아들을 낳을 때까지 오목이를 용서하지 않게 되며 이런 과정에서 오목이는 폐결핵에 걸려 죽게 된다.

그녀가 두려워하는 것은 오목이의 죽음이 아니라 오목이가 죽음으로써 자신이 마음속 깊이 감추고 있는 추악한 죄악을 털어놓는 일이었다. 위낙 견고하고 감쪽같이 포장된 죄악이라 죽음처럼 극적이고 마지막일 수밖에 없는 계기 없인 참회가 이루어질 가망이 없다는 걸 그녀 스스로 잘 알고 있었다. 그런 까닭에 그녀는 오목이의 죽음을 전제로 하지 않고는 자신의 참회를 상상도 할 수가 없었다. 결국 그녀가 꿈꾸는 참회는 죄의식의 완전한 소멸이었다. 그녀의 참회를 기억하는 증인도, 죄에 대해 어떤 벌도 남지 않는 참회 그 자체로 끝나는 산뜻한 참회였다. 그래서 그녀가 참으로 두려워하는 것은 참회보다는 참회를 못하게 될까 봐서였다.⁶⁷⁾

「무슨 병인지 말해봐. 네가 알고 있다는 병이?」

「일남이가 고해바치지 않았겠어요? 피를 토 했다구. 가끔 그래요. 이번엔 좀 심했지만. 아이들한테 들킨 것도 이번이 처음이에요. 아이들이 아우성치는 바람에 나도 그만 정신이 아찔한 사이에 이렇게 병원신세를 지게 되는 거예요. 피를 본다는 건 아무리 아는 병이라도 기분 나쁜 일 이거든요」 「그 아는 병이 무슨 병이냐니까?」 「폐가 나쁘네요. 난 벌써부터 알고 있었지만 의사한테 직접 듣기는 영남이 낳을 때 처음이었

66) 위의 책, p. 334.

67) 위의 책, p. 513.

어요. 요샌 좋은 약이 많아 문제없대요. 그리고 흔해빠진 병이래요.」

…… (중략) ……

「그럼 그 애가 결핵인 게 틀림없군요?」 「환자가 그 지경이 될 때까지 그것도 모르고 계셨던가요?」⁶⁸⁾

「오목아, 아니 수인아, 넌 오목이가 아니라 수인이야. 내 동생 수인이야. 내가 버린 수인이야. 내가 너를 몇 번이나 버린 줄 아니?…」 이렇게 목멘 소리로 시작해서 길고 긴 참회를 끝냈을 때 수인이는 이미 죽어 있었다. 그러나 수지는 용서받은 것을 믿었다. 수인의 죽은 얼굴엔 남을 용서한 자만의 무한한 평화가 깃 들어 있었으므로」⁶⁹⁾

이처럼 외형상으로 나타나는 수지와 오목이의 관계는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로서 ‘형제의 갈등’으로 남는다. 여기에서 작가는 수지와 수철, 오목이를 대립적 상황으로 설정하고, 이를 분단으로 인한 비극의 상흔인 이산문제에 대한 중산층의 자기중심적인 허위의식으로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아직까지도 휴전중인 6·25 분단의 아픔이며 이기주의와 허위의식에서 비롯됨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산가족이 생겨난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전쟁이며, 전쟁으로 인해 유발된 사회의 모순과 사회 구조가 이들의 재결합을 근본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작가는 이런 측면에서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이산가족의 재결합이 진정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의 해결이 먼저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박완서는 이 작품을 통해 전쟁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의식의 형상화에서 보여 지던 역사인식의 결여라는 한계에서 벗어나 이를 분단과 이산문제라는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 작품은 전쟁 때문에 일어난 가족사 간의 비극과 상처, 그리고 인간성의 상실의

68) 위의 책, pp. 508~509.

69) 위의 책, p. 530.

문제를 고발하고 있으며 사회의 전반적인 세태에 대한 비판을 구체적인 인물을 통해 고발하고자 했다. 소설 속의 인물은 개인과 개인 또는 개인과 사회와의 대립관계 속에서 나타나고, 작가는 현실적 체험에서 그 주인공을 구하고 있다.⁷⁰⁾ 그러므로 한 작가가 어떤 유형의 인물을 설정하는가 또는 그 인물의 어떤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가 하는 문제는 기교상의 차원을 넘어서 한 작가의 문학적 특징을 엿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박완서 작품에 나타나는 인물은 우리의 사회와 역사에 대한 작가의 감각이 잘 투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사회와 역사의 모순에 대한 비판의식을 지닌 인물들을 작품 속에 등장시킴으로써, 사람들의 속물근성과 불신주의를 고발하면서 우리사회에 내재한 문제점들을 비판하고 있다. 이로써 물질만능의 사회가 초래한 개인적 이기심으로 인해 가족의 재결합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즉, 전쟁과 분단으로 인해 생겨난 이산문제들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어떻게 사회적으로 확대되었는지는 이들의 재회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박완서는 분단과 이산이라는 상처 치유의 문제를 사회적 인식으로 확대시킨 작가이다. 작가는 분단과 이산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재회문제와 전쟁으로 야기된 사회의 문제점들을 수인과 수지, 수철의 재회와 갈등을 통해 개인적이며 가족적인 차원에서 분단문제로까지 확대시켜 보여주고 있다. 그는 전쟁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암울했던 시대를 문학의 소재로 삼았다. 특히 글쓰기를 통해 자신이 체험과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하고 성숙으로 나가는 글쓰기를 하고 있다.

『나목』에서는 어머니와 딸 사이를 단절된 관계로 만들 정도로 짙은 상흔인 오빠의 죽음이 남긴 상처와 어머니와의 단절된 관계에서 탈출하

70) 소설가는 다른 예술가 동지들과는 달라서 자기 자신을 대충 묘사하는 수많은 단어를 만들어 여기에 이름과 성을 붙이고, 그럴듯한 몸짓을 시키고, 인용 부호를 사용하여 말을 시키고, 전후가 맞는 행동을 하게 된다. 이 단어들이 작중인물이다. (E. M. Foster, 이성호 역, 『소설의 이해』, 문예출판사, 1996, p. 50).

고자 하는 주인공의 욕망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얘기하는 것이다.

『엄마의 말뚝 2』에서는 개별적인 치유방식으로 다스려왔던 상처에 대해 어머니의 수술을 계기로 고통을 경험하면서 피해자인 어머니와 딸은 갈등을 겪는다. 그 상태는 『엄마의 말뚝 3』에 오면서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딸은 어머니와 자신이 안고 있었던 상처로부터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진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개인적 차원에서 분단극복의지가 사회와 연결되면서 현실비판을 통한 진정한 통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작품은 박완서가 이런 시대적 상황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으로 분단과 이산이라는 상처 치유의 문제를 사회적 인식으로 확대시킨 작품이다. 표면적으로는 6·25전쟁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과 이산가족들이 다시 결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작품의 심층에서 이산가족을 만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인간의 이기심과 허위의식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3. 진실 은폐에 대한 현실 풍자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1991)⁷¹⁾는 작가의 현실 비판의식이 잘 드러난 작품이다. 이 작품은 6·25의 문제가 소설 속에서 정치적 상황에 따라 변화되고 수용되는 사회적인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한 시골마을의 이야기가 오늘의 시각에서 그려진 것으로, 작가가 복원하고자 했던 정치현실과 해금작가의 실상이 모두 그 가족들에 의해서 거부되는 현실을 꼬집고 있다. 6·25에 대한 의식이 오늘의 일상을 여전히 지배하는 현실⁷²⁾을 보여 주면서 사회에 커다란 문제의식을 던지고 있다. 과거

71) 박완서,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문학과 지성사, 1991, p. 176.

72) 이정숙, 「복원의 거부와 은폐, 사회소설의 한 양상 연구」, 한성대학교 인문과학연구원, 2003, p. 41.

의 부정이 올바르게 복원되지 못한 채 되풀이되는 역사적 상황을 소설구조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박완서 소설에서 6·25가 가족사의 차원을 넘어 시대의 비판의식을 통해 사회소설의 영역에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오래 전에 일어났던 부정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시골의 한 노인이 “원형을 재현하듯이 본디 모양 그대로”의 일을 꼼꼼하게 기록해 두었다가 수기를 썼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진실을 있는 그대로 세상에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권력이 저지른 부정이 개인만이 아닌 가족 구성 전체에까지 고통과 상처로 남아 있어 복원하고자 했던 여러 가지의 일들이 복원되지 못하는 현실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1991)⁷³⁾에 대한 작가의 현실 비판의식의 구체적 양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작품은 작가의 가족사 차원의 이야기라기보다는 한 시골 마을의 논픽션 작가와, 해금 후에 복원된 작가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의 시각으로 그려져 있다. 즉, 한 시골 마을의 논픽션 작가가 복원하고자 했던 정치 현실과, 작중 화자인 작가가 복원하고자 했던 한 해금 작가의 실상이 모두 그 가족들에 의해서 거부되고 부정되는 현실을 꼬집은 소설이다.⁷⁴⁾

이 작품에서 나는 6·29선언 이후 한 관변잡지의 논픽션공모에서 삼십만원이라는 심사료 청탁을 받고 “복원(復元)”이라는 수기를 뽑지만 수기라는 잡지의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더구나 이 잡지는 팔릴 것 같지 않은 교양지였다. 게다가 정부 시책을 합리화 시키고 홍보하는 구실을 하는 정부 투자기관의 연구소에서 발행하는 것이었으나 어용을 꺼리는 지식층은 거저 쥐도 마다할 만한 잡지였다.⁷⁵⁾

73) 박완서,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문학과 지성사, 1991, p. 176.

74) 이정숙, 앞의 책, p. 41.

75) 박완서,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문학과 지성사, 1991, p. 176.

그러나 내건 상금이 파격적이어서 선거 예선을 통과한 수기들이 다 놓치기 가까운 수준이었고 소재도 고루 다양했다. 이렇게 수준이 고를 때는 되레 당락이나 일 이등을 정하는 데 애를 먹게 마련인데 이번엔 그럴 걱정도 없었다. 최우수작으로 뽑은 「복원(復元)」은 그중에서도 단연 돋보였다. (중략) 이거야말로 당선작감이라고 눈에 번쩍 띄는 글을 만났을 때는 절로 신바람이 나게 마련이다.⁷⁶⁾

“참 세상 좋아졌죠? 예전 같으면 감히 그런 걸 폭로할 엄두를 어떻게 냈겠어요. 그것도 순박한 시골 사람이.....”
그렇다. 우리가 좋아하고 있는 건 그럴듯한 당선작을 만나서가 아니라, 그런 얘기가 당당한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새로운 세상이었다.⁷⁷⁾

이 수기는 유신을 전후한 두 번의 국회의원 선거 때, 한 씨족 마을에서 저지른 부정 선거 이야기였다. 이 마을의 이장이 마을을 잘 살게 하기 위해 축산업으로 전환하고 싶은 마음에 도움을 줄 권력자를 찾고 있었다. 마침 공화당의 추천을 받은 그 지역의 입후보자와 연이 닿아서 그에게 유리하도록 선거를 이끌면서 투표당일에는 자유당 말기의 공개 투표, 무더기 투표, 대리투표, 개표 부정의 수법을 써서 입후보자가 당선되는데 유신헌법이 발효되고 다시 입후보자가 같은 부정을 저질러 다시 당선된다.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공모 수기는 세세한 부분을 실제적으로 표현하여 최우수작으로 뽑힌다. 그러나 수기 당선자는 수상을 거부했다. 1년이 훨씬 지난 어느 날 수상을 거부한 주인공이 궁금해서 찾아가 보니, 그 수기에 나온 국회의원 선거 후보를 수행하기 위해 그 지역에 내려왔기 때문에 그의 아내는 보복이 두려워 남편의 수상을 만류했다는 것이다.

76) 위의 책, p. 179.

77) 위의 책, p. 180.

탁월하다고까지 생각한 건 소재보다는 그의 특출한 기술 방법이었다. 그는 마치 깨진 그릇의 파편을 주워 모아 원형을 재현하듯이 우직하고도 꼼꼼하게 한 지난 시대에 어떤 외진 고장에서 있었던 부정의 추악상을 본디 모습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다. 그 드러냄이 어찌나 선명하고 여실한지 어떤 변두리에서 있었던 사건을 뛰어넘어 한 추악한 시대의 전형을 보는 느낌을 갖도록 했다. 그건 문장력 같은 것하곤 달랐다. 그런 걸 타고났다거나 갖고 닦은 흔적이 조금도 없는 게 되레 그 수기의 미덕이었다. 그는 다만 하나의 부정을 완성하는데 있어서 권력이 차지한 몫뿐 아니라 그 자신과 주변의 평범한 사람이 분담한 몫까지를 동정도 과장도 없이 정직하게 들어냈을 뿐이었다. 따라서 혼한 고발이나 폭로의 의도도 엿보이지 않았거니와 속죄양이 되어 모든 잘못을 자신이 뒤집어 쓰는 것처럼 꾸미고, 실은 고백은 손톱만큼 하고 태산 같은 위선의 기쁨을 누리려는 참회록 따위하고도 달랐다.⁷⁸⁾

월북되거나 납북된 문인들의 복원에 대한 이야기는 작가 박완서의 숙명여고 시절 국어 선생님이었던 도촌(島村) 박노갑(1905~1951)⁷⁹⁾을 모델로 그의 가족들과 주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해금된 작가의 진실 찾기이다. 송사묵 선생의 유가족으로부터 납북된 선생님을 그리워하는 원고 청탁을 받는다. 그러나 박노갑 선생은 납북된 것이 아니라 서울 수복 이후 부역자로 사형 당했다는 사실을 알지만, 진실을 밝히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님을 알고 갈등한다.

박노갑은 1988년 해금 전까지 월북작가로 분류되어 오랫동안 남한독자들과 강제적으로 격절되었는데, 그의 문학정신이 그녀의 문학 속에

78) 박완서, 앞의 책, p. 140.

79) 島村 박노갑 (1905~1951)은 조선 중앙일보에 단편 『안해』를 발표 1·4 후퇴 직후 일시 수복된 서울에서 숙명여고에 출근하기 위해 집을 나간 후 소식을 알 수 없게 되었다. 그의 유족으로는 아내와 2남 3녀가 있으며 3녀인 규애는 영화감독인 이장호와 결혼했다. 박노갑은 1988년 해금 전까지 월북 작가로 분류되었으나 그녀는 박노갑의 최후에 대한 중요한 증언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문학사의 오류를 교정할 수 있었고, 비록 소설이지만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1989)에서 그가 9·28수복 후 서울에서 연행되어 처형되었다고 밝혀져 있으나, 박노갑은 월북도 납북도 아닌 남쪽에서 사형되었다.

살아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숙연케 하는 바가 없지 않다. 더구나 그녀는 박노갑의 최후에 대한 중요한 증언을 제공함으로써 기존 문학사의 오류를 교정하게 만들었으니, 비록 소설이지만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1989)에서 그가 9·28수복 후 서울에서 연행·처형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박노갑(1905~1950)은 월북도 남북도 아닌, 남쪽에서 사형된 작가인 것이다. 그의 건실한 리얼리즘이 오늘의 박완서 문학의 바탕이 되었다면 그것은 그가 우리 문학사에 기여한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다. 이렇게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는 복원하고자 했던 정치현실과 해금작가의 실상이 모두 그 가족들에 이처럼 박완서는 자신의 글을 통해 내면의 상처를 다스려왔다

책방엔 6·29 전에는 꿈도 못 꿀 책이 쏟아져 나와 서로 베스트셀러를 다투고 있었다. (중략) 진실이 매몰된 사건들을 파헤치고 복원하고 고발한 소설이나 논픽션의 출판도 더욱 활발해진 것 같았다. 오공과 유신시대를 풍자한 콩트들은 어찌나 신랄하고 재미가 있는지 서서 몇 페이지만 읽어도 포복절도를 할 지경이었다. (중략) 남북 문인들의 문학 선집도 나와 있었다. (중략) 그리고 마침내 송사묵 선생님의 이름을 찾아냈다. (중략) 송사묵은 해방을 전후한 십여 년 동안 그닥 재미는 없지만 씹을 맛있는 소설을 꾸준히 발표해온 소설가였고 나의 고등학교 시절의 국어 선생님이었다. 장차 소설을 써보는 게 꿈이었던 문학 소녀 때 진짜 소설가가 국어 선생님이로 부임해왔다는 건 가슴 울렁거리는 사건이었다. (중략) 그래서 그의 작은 칭찬도 잊지 않고 인정의 표시로 간직하게 되었고, 그걸 훗날 소설을 쓰기 시작할 때 비빌 언덕으로 삼을 수가 있었다.⁸⁰⁾

이 선집에 송사묵은 나의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로 가운데 자가 실종되었다가 복원된 것이 감개 무량했다. 문학선의 표제에는 (월북) 남북 문인 선집으로 되어 있어 이처럼 망가지고 흩어진 것들을 복원하는 노력이 진정한 복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⁸¹⁾

80) 박완서, 앞의 책, p. 189.

81) 위의 책, p. 190.

송부장이 나를 만나자고 한 건 송사묵 선생의 전집에 관한 건 때문이었다. 만형이 원해서 그동안 아버지가 남긴 작품을 모아보니 장편이 한편, 중단편이 사십여편이라 세권쯤의 전집으로 꾸밀 만 하더라는 것이었다. (중략) 전집까지 꾸미게 된 내력과 감격, 축하 뭐 그런거 있잖습니까, 그런 걸 써주시면 됩니다. (중략) 송사묵 선생이 사형당한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어떻게 북한에 있는 것처럼 가정할 수 있겠는가. Q씨의 오류를 바로 잡기는 커녕 내가 이미 기정 사실화된 거짓 위에다 또 하나의 거짓을 덧칠할 판이었다. (중략) 그분이 남긴 문학을 몽땅 모아 놓은 자리라면 의당 그분의 생애도 정직하게 복원돼야 마땅했다. (중략) 그러기 위해선 그걸 입증해줄 제삼자의 도움이 필요했다.⁸²⁾

1950년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되자 숙부는 전쟁 당시 인민군의 식사준비를 했다는 누군가의 밀고로 서대문 형무소에 수감된다. 그 전의 사실이 온건했다는 것을 밝혀 진정서를 첨부하면 재판에 유리하나, 이를 증명해 줄만한 사람들에게 문전 박대로 거절을 당한다. 그 후 출감한 사람들을 통해 받은 편지에는 “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고 짐승처럼 죽기 싫다”는 말은 듣지만 사형을 당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다. 그러던 중에 고등학교 동창인 혜진이를 만날 수 있었는데 6·25때 민청을 나간 사실이 화근이 되어 감옥살이를 했었고, 그 감옥 안에 송사묵 선생님도 같이 계셨으며 결국 그 안에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는다.

하지만 남편에게 감옥에 갇혔던 사실을 속이고 결혼했기 때문에 또 하나의 복원의 꿈은 허물어지고 만다. 그 후 어떤 각테일파티에서 박민세 옹을 만난다. 월북했다는 소식이 있지만 그 분은 제 발로 북으로 갈 사람이 아니라고 두둔하면서 옹호를 한다.

이처럼 박민세 옹의 거부반응과, 송사묵 선생의 행적에 대한 사실 확인을 은폐하고, 여고 시절 친구의 거부 반응이 그들 개인의 안위와 결부되어 있었다. 이러한 면에서 볼 수 있듯이 이는 그 시절을 참고 살아

82) 위의 책, p. 195.

가는 분단 가족의 피해의식⁸³⁾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송 부장한테 부탁받은 편지글은 ‘북쪽에 계신……?’ 인지, ‘저승에 계신……?’ 인지를 우왕좌왕 하다가 당부한 날을 넘기게 된다. 그러나 그 후에도 재촉하는 전화가 없는걸 보니 『앞서가는 조국』 지는 날짜 맞춰 나와야 할 중요한 잡지는 아닌 모양이었다.

누구나 빠져나갈 구멍 먼저 마련해 놓고 있었다. 진실이 마치 함정이나
덧이라도 된다는 듯이, 남 나무라 무어하랴, 누구보다도 내가 그렇게 살
아 왔다는 증거로 나는 하필이면 나의 축새 같은 입놀림을 생각해 냈
다.⁸⁴⁾

위의 글은 송사묵 선생의 큰아들과 음식점에서 갈비를 뜯으면서 “원고의 첫줄을 북쪽에 계신……으로 할 것인가” 혹은 “저승에 계신……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의논하면서 생각하는 것이다. 송사묵 선생님의 장남은 몇 개의 대표이사 명함을 가진 걸 보니 장사꾼 같았고, “납치당하신 것처럼 말하는 것 말이죠, 그건 우리 식구들의 말버릇이죠, 사형이나 옥사보다 얼마나 듣기 좋아요”, “언제부턴지 북쪽으로 간 사람들의 문학이 거론되면서 아버님도 그 안에 포함되는 걸 보고 다만 동조한 것뿐이죠. 그건 진실이 아닌데 가족이 마땅히 정정을 해야지 동조를 하다니 말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고서야 원고 첫 줄을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다. 송 사장은 여전히 오남매가 모두 성공했다고 나열해 주기를 이글쟁이한테 청탁을 하고 있었다. 겨우 갈비와 소주를 먹이면서 말이다. 난 자작으로 연거푸 축배를 든다.

수기 작가의 ‘꼼꼼한 기록성’을 기리며 죽은 소설가를 정확하게 복원⁸⁵⁾해야 하나 끝내 ‘나’는 진실을 알고도 말하지 못한다, 이 소설은 한

83) 박완서, 『저문 날의 삼화』, 문학과 지성사, 1991, p. 176~204.

84) 앞의 책, p. 166.

85) 정호웅, 「스스로 넓어지고 깊어지는 문학」, 『박완서 단편소설전집 5』, 문학동네, 1999.

노인의 수기와 내 스승의 복원을 통해 감추어진 진실을 밝혀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복원은 한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진정한 복원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며, 훼손된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다. 이러한 박완서의 현실 비판적 시각은 개인의 양심회복이 사회로까지 확대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준다. 박완서 소설의 양상도 시대와 사회의 변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박완서의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는 6·29 이후 월북 작가에 대한 해금이 이루어지면서 가능했던 사회소설이다. 정치적 상황과 시대 변화가 직접적인 동기가 되며 당시 사회에 문제의식을 던진 작품이다. 이것은 6·25로 인한 불행한 가족사가 50여 년이 넘도록 해소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박완서 소설에서 6·25는 『엄마의 말뚝 2, 3』의 가족사 차원을 넘어 사회현상으로 확대되면서 6·25로 인한 상처가 개인의 행동을 어떻게 구속하고 제약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IV. 정신적 외상의 치유방식

전후문학은 참담한 전쟁을 겪음으로써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황폐화의 불모지에서 성장한 문학이다. 이 시기의 문학은 전쟁의 참상을 고발하는 문학,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는 문학으로, 전쟁을 고발과 치유로 형상화해 내고 있다. 이러한 전후 상황을 고발하고 증언하는 작품을 써나간 작가 박완서는 전쟁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암울했던 시대를 문학의 소재로 삼았다. 특히 박완서는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체험과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하고 성숙으로 나가는 글쓰기를 하고 있다. 따라서 박완서 소설 속에서 상처를 갖고 있는 인물들이 그 상처를 어떻게 인식하고 치유해 가는가를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나목』에 드러난 전쟁이 남긴 상처는 어머니와 딸 사이를 단절된 관계로 만들 정도로 짙은 상흔을 남겼다. 오빠의 죽음이 남긴 상처와 어머니와의 단절된 관계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욕망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얘기하는 것이다.

『엄마의 말뚝 2』에서는 개별적인 치유방식으로 다스려왔던 상처에 대해 어머니의 수술을 계기로 고통을 경험하면서 피해자인 어머니와 딸은 갈등을 겪는다. 그 상태는 『엄마의 말뚝 3』에 오면서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딸은 곡성을 통해 어머니와 자신이 안고 있었던 상처로부터 벗어나면서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진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개인적 차원에서 분단극복의지가 사회와 연결되면서 현실비판을 통한 진정한 통일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작품은 박완서가 이런 시대적 상황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과 분단과 이산이라는 상처 치유의 문제를 사회적 인식으로 확대시킨 작품이다. 표면적으로는 6·25전쟁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과

이산가족들이 다시 결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작품의 심층에서 이산가족을 만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인간의 이기심과 허위의식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즉, 작가는 분단과 이산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재회 문제와 전쟁으로 야기된 사회의 문제점들을 세태 비판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수인과 수지, 그리고 수철의 재회와 갈등이 개인적이나·가족적 차원에서 뿐만이 아니라 단순한 세태 풍자를 넘어서 분단문제까지로 확대된다. 이것은 거의 반세기가 지나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6·25나 분단의 아픔이 허위의식에 있다는 걸 의미함으로써 이기주의와 속물근성을 사회적인 개념으로 파악하고 있다.

6·25때 헤어진 가족을 찾는 모습은 전쟁 후 계속되어 왔지만, 이를 사회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은 ‘KBS의 이산가족 찾기 운동’이었다. 그러나 박완서는 이런 방송이 시작되기 1년 전에 이미 이 작품을 신문에 연재했다. 이것은 작가가 얼마만큼 분단과 이산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실제로 박완서는 이 소설이 연재되기 이전에 한 일간지가 주최한 이산가족 찾기 운동의 직·간접적 영향을 받았음을 소설 속에 내비치고 있다.

이 작품에 제시되는 이산이나 재회의 모티프는 분단 현실 속에서 뒤틀리고 마비된 윤리의식과 사회 곳곳에 산재하는 형제갈등의 가학/괴학의 혼재된 심리가 얼마나 뿌리깊은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가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보여준다. 이 작품은 이런 점을 계층 간의 갈등으로 보고 있으며 가해자의 입장에 있는 수철과 수지를 중산층의 계급으로 설정하여 이들이 전쟁으로 인한 상처를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해 동생을 잃어 버렸다는 비극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핏줄보다는 자신들의 안위만 추구하고 이기심만을 쫓는 허위의식을 볼 수 있다. 반면 오목이를 전쟁과 혈육으로부터의 유기, 고아원 생활, 고향과 애인에게 버림받고 죽어가는 모습으로 형상화함으로써 이산의 참담한 비극상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형제유기에서 시작되어 참회로 끝나는 구성으로 볼 때, 이 작품은 전쟁으로 인해 갈라진 피붙이들이 이 사회의 계층화된 삶의 구조 속에서 서로 화합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이질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으로써 작가는 헤어졌던 가족들의 따로따로 형성된 삶의 전체 내용을 동반하는 진정한 만남과 화합으로 이루어 가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험난한 것인가를 제시한다. 또한 작가는 화합이 이뤄지지 못한 재결합의 실패를 보여주면서 우리의 의식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있는 이기심에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만큼 이 소설은 만남과 화합, 나아가서는 통일의 어려움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 결점을 보인다. 그러나 이런 강조는 역으로 이산가족의 만남과 통일에의 필요성이 얼마나 절실한 것인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산가족이 생겨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전쟁이며, 전쟁으로 인해 생겨난 이산가족의 재결합이 진정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의 해결이 먼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박완서가 시대적 상황의 예리한 통찰력으로 분단과 이산이라는 상처 치유 문제를 사회적 인식으로 확대시킨 작품이다.

거실에서 뜨개질하던 수지는 큰아들이 5살짜리 동생을 울리고 있자 아들에게 심한 매질을 하면서 자신의 일곱 살 시절을 떠올린다 (p. 13). 전쟁이 일어나자 아버지는 반동분자로 잡혀가고 어머니는 폭탄 파편을 맞고 죽는다 (p. 26). 모두 떠나는 피난길에 수지는 동생 오목이(수인)의 손을 몰래 놓아 버린다 (p. 26). 어른으로 자란 수지는 대학 봉사활동을 위해 ‘오누이의 집’을 찾아가 오목의 행방을 묻는다 (p. 40). 독지가의 주선으로 재수학원에 취직한 오목이는 고아원을 찾아가 잃어 버린 은표주박 목걸이를 찾고 보일러공이 된 일환을 만난다 (p. 66~75). 오목이는 입시에 낙방하고 가출한 미순을 집까지 데려다 준 인연으로 그 집의 가정 교사 겸 식모가 되고 양녀로 입적된다. 수철은 신문에 난 이산가족 찾기란에

서 오목의 사진을 보고 동생임을 확인하지만 외면하면서 독지가가 되어 오목이를 재수학원에 취직시킨다 (p. 113). 수지는 졸업식 날 애인인 인재 어머니를 만나 그의 가난의 실체를 보고는 그 후 조건 좋은 기육을 만난다 (p. 124~125). 오목이는 수지와 수철과는 반대로 가지지 못한 자의 피해의식을 갖고 있다 (p. 166). 오목이는 버스 값을 대신 내준 인재와 인연이 되어 다시 만나면서 자신이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신분 상승을 꿈꾸게 된다 (p. 175). 인재는 수지한테 그만 만나자는 말을 듣고 분풀이로 오목을 겁탈한다 (p. 197). 수지는 오목이가 은표주박 목걸이 한 것을 보고서 동생임을 확인하지만 인재와 만나는 것을 시샘해 고아원 출신이라는 사실을 폭로해 버린다. 이 사실에 오목이는 수지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고 적의감을 느낀다. 수지는 기육과 화려한 약혼식을 올리고 나서 오목이를 버렸다기보다 오목임을 알고도 모른 채한 죄의식을 느낀다. 수지는 책상정리를 하다 수철이 감춰두었던 신문에서 오목이의 사진을 발견하고서 수철이도 자신처럼 오목이를 모른 채 했다는 사실에 분노를 느끼며 다룬다. 오목이는 일환과 결혼해 여덟 달 만에 인재의 아이를 낳고 일환은 자꾸 커가는 아이가 자신과 닮지 않음을 비판해 오목이한테 술과 폭력을 휘두르게 된다 (p. 349). 수지도 기육과의 불화로 지방대 강사생활을 하면서 허영스런 자선사업을 하며 지낸다 (p. 405). 수지가 일환에게 속죄하는 마음으로 중동에 취직 시킨다 (p. 440). 그가 떠난 후 오목이의 병이 깊어지자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오목의 아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한편, 오목이의 일을 의논하기 위해 수철을 찾아간 파티장에서 그간의 자신을 돌아보게 된다 (p. 452). 오목이가 수지에게 은표주박 목걸이를 걸어주면서, 수지가 자신의 언니였음을 믿었으나 오목이는 폐결핵으로 죽게 된다 (p. 471~530).

이렇게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이산 문제의 허위의식은 분단 가족의 형제 갈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지와 수철, 오목이를 통해 한 형제이면서도 분단으로 재결합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보여준다. 6·25 전쟁 당시 잃어 버린 동생을 다시 찾게 되었어도 계층 차이로 오목이를 인정하지 못하는 개인적인 피해의식과 아픔의 상처는 일부 개인의 상처만이 아닌 사회전반에 걸친 사회적인 문제이다. 이것은 전쟁과 분단으로 이산가족이 된 수지와 오목의 대립적인 관계를 통해서 화

합하기 어려운 사회계층간의 문제를 나타내주고 있다. 따라서 이 작품은 “역사적인 시각”에서 씌어진 6·25의 소재로서 “오늘의 세대풍속을 실감나게 그리면서 인간심리의 양면성을 추적한 것”⁸⁶⁾이라 볼 수 있다.

전쟁으로 주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하던 1·4 후퇴 때, 피난길에서 7살 난 수지는 동생 오목이의 손을 고의로 놓아 버린다. 그 후 대학생이 된 수지는 ‘오누이의 집’이라는 고아원에서 성이 ‘오씨’이고 이름이 ‘목이’란 소녀를 찾게 되지만 끝내 외면해 버린다. 이러한 수지의 자기 기만적인 행위는 오빠 수철도 마찬가지인데, 오목이를 찾아놓고도 외면하고 수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만을 찾는 모순된 행동을 보인다. 수철이가 오목이를 찾는 이유는 주위사람들에게 어린 시절에 헤어진 동생을 못 잊어 애태운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이중적이고 모순적인 행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수지가 헤어진 형제를 찾는 순간부터 자신이 누렸던 평화가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이와 같은 위선적인 행동을 보인다. 이러한 수지와 수철의 이런 이기적인 속물근성은 6·25전쟁으로 인해 민족 분단의 비극에서 빚어진 것이며 이들 모두가 또한 전쟁의 피해자라 할 수 있다.

등단 후 박완서의 장녀는 어머니의 문학에 대한 인상기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예술가란 아름다운 것들을 창조하는 자다. 예술을 나타내고 예술가를 감추는 것이 예술의 목적이다. (중략) 단기 4291년에 번역되어 나온 오스카 와일드의 『도리언 그레이의 초상』의 서문이다. (중략) 어머니가 좋아했던 책인데 내가 조금 성장했을 때 이 책을 뿔아 주시며 눈을 빛내셨다. 어머니의 작품에서 어떤 구절들, 담미적이고 어떤 묘사에 도취된 듯한 표현을 접할 때마다 나는 오스카 와일드가 생각난다.”⁸⁷⁾

86) 이동하, 『한국 대중 소설의 수준』, 정음사, 1984, p. 133.

87) 『박완서 문학앨범』, 웅진출판사, 1992, p. 31.

오스카 와일드는 아일랜드 출신으로 영국에서 활약한 탐미주의 작가이다. 한때는 무엇이 그녀를 낭만주의에 빠지게 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은 고교 은사 박노갑에 대한 박완서의 회고에서 찾을 수 있다.

그분은 문학소녀들이 갖기 쉬운 환상이나 미사여구를 경계하도록 가르치셨고 남의 흉내를 내지 말라고 얘기하셨죠. 문학이 무엇인가를 엄정하게 보여 주신 스승이었습니다.

그의 글쓰기는 내면의 상처를 털어놓는 작업이면서, 직접 목격한 것을 증언하는 의미를 가진다. 또한 내면의 상처를 끊임없이 반복하는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 상처를 치유한다. 전쟁체험과 오빠의 죽음에 대한 상처는 살아남은 가족의 고통과 상처의 삶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70년대의 『나목』으로 상처 드러내기를 하면서, 80년대의 『엄마의 말뚝』으로 상처를 함께 대면하고 치유해 나간다. 90년대는 아들 죽음의 계기로 상처받은 삶을 포용하는 글쓰기로 성숙되어진다. 즉, 고통이나 상처의 삶을 끊임없이 써 나가는 작업으로 상처를 치유해 나간다.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인물들의 상처를 내면화해 가는 글쓰기는 작가 자신의 이데올로기의 억압에서 벗어나서 삼킨 죽음을 토해내는 곡(哭)성을 통해 화해하면서 그 상처에서 자유로워지려는 것이다.

1. 기억의 서사화를 통한 극복

박완서 소설에서 상처를 가진 인물들은 기억을 통해서 그 상처를 인식하고 치유해 나간다. 그는 특유의 이야기꾼 솜씨로 자신의 기억⁸⁸⁾ 속에 남아있는 체험이 바탕이 된 이야기와 일상에서 가치를 발견하여 하

88) 박완서, 「나에게 소설은 무엇인가」, 『박완서 문학앨범』, 웅진출판, 1992, p. 123.

나의 작품이 되고 문학이 된다.

남들은 잘도 잊고, 잘도 용서하고 언제 그랬더니 싶게 상처도 감쪽같이 아물리고 잘만 사는데, 유독 억울하게 당한 것 어리석게 곱은 걸 잊지 못하고 어떡하든 진상을 규명해보려는 집요하고 고약한 나의 성미가 훗날 글을 쓰게 했고 나의 문학정신의 뼈대가 되지 않았나 싶다.

그때 내가 미치지 않고 온전한 정신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은 그때, 언젠가는 이걸 소설로 쓰리라. 이어야말로 나만의 경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었다. 그건 집념하고는 달랐다. 꿈하고도 달랐다. 그 시기를 발판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고, 정신의 숨구멍이었고, 혼다만 본자의 의무감이었다. 전쟁이 끝나고 세상이 살 만해지고 나 또한 보통사람으로서의 무사안일을 누리는 중인 그건 짜릿한 예감이 되어 나의 안일에 잠복해 있다가 발병처럼 갑자기 망각을 들쭉성거리곤 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세상에 글장으로 선을 보이게 되었을때의 감상도 꿈을 이루었다든가, 노력한 결실을 거두었다든가 하는 보람보다는 마침내 쓰는 일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안도와 체념에 가까운 거였다.⁸⁹⁾

박완서에게 이야기와 글쓰기는 체험을 바탕으로 하는 소설 쓰기를 통해 이야기가 갖는 효능을 믿고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로 풀어낸다. 이러한 작가의 이야기와 글쓰기는 자신의 체험과 상처의 삶을 담아내는 그릇과 같은 것이라 할 수 있다. 작가는 이러한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다스리면서 자신의 체험과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는 작업을 반복해 오고 있다. 그것이 그 시절의 상처를 극복하는 그녀 나름의 방식이었다. 박완서는 그 시절을 겪으면서 얻게 된 타인의 대한 증오심과 이기심, 무관심의 연원을 밝힘으로써, 과거의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까지도 냉정하게 비판할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박완서가 『나목』을 통해 일반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절의 운명의

89) 박완서, 『목마른 계절』, 열린책들, 1987, p. 302.

힘에 글로써 복수하고 있으며, 복수의 글쓰기를 통해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그 시절의 경험으로 인해 잃어 버리게 된 자신의 모습을 복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게 된다. 그 복수의 과정은 길고도 험난한데도 『나목』에서 시작된 복수와 복원의 글쓰기는 아직도 끝나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그 시절에 대한 작가의 원한의 깊이를 알 수 있다. 이처럼 상처를 치유하고 성숙으로 나가는 글쓰기를 하는 그의 문학은 기억으로 체험을 재구성해내고 있다.

「나목」 90),이 이경의 내면을 통해 자신의 글쓰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복수의 글쓰기를 하고 있고, 「목마른 계절」은 작가의 가족사적 체험이 그대로 반영된 작품으로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전쟁으로 인한 생존의 문제를 대립적으로 그리면서 이데올로기의 허위성을 비판하고 있다. 「엄마의 말뚝 2, 3」은 전쟁으로 분단된 민족적 고통을 그린 작품으로, 전쟁의 폭력성으로 인한 오빠의 죽음에 대한 상처와 분단에 맞서려는 어머니의 분단 극복의지를 잘 보여준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개인적 차원에서 분단 극복의지가 사회와 연결되면서 현실 비판을 통한 진정한 통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박완서는 분단과 이산이라는 상처 치유의 문제를 사회적 인식으로 확대시킨 작가이다. 작가는 분단과 이산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재회문제와 전쟁으로 야기된 사회의 문제점들을 수인과 수지, 수철의 재회와 갈등을 통해 개인적이며 사회적인 차원에서 분단문제로까지 확대시켜 보여주고 있다.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는 복원하고자 했던 정치현실과 해금작가의 실상이 모두 그 가족들에 의해서 거부되는 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이 소설은 한 노인의 수기와 내 스승의 복원을 통해 감추어진 진실을 밝혀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 복원은 한 개인의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진정한 복원은 권력

90) 『나목』 이경의 내면을 통해 자신의 글쓰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복수의 글쓰기를 하고 있는 셈이다.

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며, 훼손된 것을 다시 살려내는 것이다. 이러한 박완서의 현실 비판적 시각은 개인의 양심회복이 사회로까지 확대되어 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 상처를 치유하는 글쓰기

20대에 겪은 오빠와 숙부의 무참한 죽음과 포화가 우박처럼 쏟아지는 한밤중에 울케의 해산과 한 가족의 끔찍한 죽음이 엇갈리는 전쟁통의 현실은 작가의 마음에 깊은 상처와 충격을 주었다. 그 후 박완서는 돈 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닦치는 대로해야 하는 한 집안의 가장 이었다. 결혼과 더불어 삶이 안정된 이후에도 6·25의 악몽에서 시달리다가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 작가가 찾아낸 유일한 치료제는 글쓰기였다. 그는 자신의 체험을 증언하기 위해서 소설 쓰기를 시작한 것이다. 박완서에게 문학은 악몽의 체험을 생생하게 재현함으로써 역설적으로 고통에서 조금이나마 자유로워지게 하는 유일무이한 수단이었던 것이다.⁹¹⁾ 이런 문학의 출발과 함께 박완서가 소설가가 되는데는 어머니의 영향이 컸다. 박완서는 이야기꾼인 어머니의 영향으로 소설은 이야기라는 신념을 갖게 되었으며, 자신의 어머니가 이야기에 만능의 효능을 걸었던 것처럼 박완서도 자신의 이야기에 여러 가지 효능을 걸었던 것이다. 이야기의 효능을 믿는 박완서는 어머니 자신이 겪었던 6·25체험과 오빠의 죽음, 그리고 어머니와 자신의 이야기를 소재로 하면서 삶에서

91) 작가는 전쟁의 체험을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때 남아 있는 나를 건디게 한 힘 같은 것이 있었어요. 언젠가는 이걸 써야지 하고 생각 했어요. 그런 예감도 있었으리리가 생각해요. 이걸 나만이 겪은 거고, 나만이 겪은 것을 안 쓰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 (중략) …… 내가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에 대해서 꿈꿀 수 있는 것은 내가 저 인간들에 대해서 써야겠다는 것밖에 없었어요』

(이문재 · 박완서 인터뷰), 「나의 문학은 내가 밟 디딘 곳이다」, 『문학동네』, 1999, 여름호, p. 39)

문어 나오는 고통과 상처를 이야기라는 만병통치약을 통해 치유하고자 하였다.

‘전쟁중에 목격한 오빠의 죽음도 나에게서 불치의 상처를 남겼다. 나에게 그는 오빠인 동시에 아버지였고 우상이었다. 그는 6·25를 체험하기 전의 젊은이들이 흔히 그랬듯이 한때 사회주의 사상에 심취했다가 전향한 경력을 가지고 있었다. (중략) 오빠는 서서히 죽임을 당했다. (중략) 사람 나고 이데올로기 난 게 아니라 이데올로기 나고 사람 난 세상은 그렇게 끔찍했다. 아무한테도 발설하지 못하고 우리 가족만의 비밀로 꼭꼭 숨겨둔 오빠의 죽음은 원귀가 된 것처럼 수시로 나를 괴롭혔다.’⁹²⁾

내면을 ‘토약질하기’는 작중인물들의 소외상태가 극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분리를 통한 소외 너머의 지향을 의미한다. ‘토약질하기’는 작중인물들이 허위적 일상을 거부하고, 그 일상으로부터의 분리를 추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박완서 소설에서 ‘토약질하기’는 자신이 내면을 토해내고 거부하는 의미가 된다. 따라서 토약질이 기존의 상징적 질서에 대한 ‘부정’의 의미로 가장 선명하게 형상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부처님 근처’에서 글쓰기를 통해 구토로 상징화시키고 있는 부분이다.

나는 어느 틈에 내 이야기로 소설을 쓰고 있었던 것이다. 토약질하듯이 괴롭게 몸부림치며, 토약질하듯이..... ⁹³⁾

‘나’와 어머니는 오빠와 아버지의 죽음이 욕되고 수치스러워서 이들의 죽음을 남들에게는 비밀로 한 채 꿀꺽 집어삼켜 버린다. 아버지와 오빠의 장례와 제사를 지내주고 싶은 욕망을 억누른 채 언제나 명치끝에 체증을 느끼며 살아온 ‘나’는 그러나 이십 년이 지나 비로소 이데올로기의 억압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이 삼킨 이야기를 토해낼 수 있게 된다.

92) 앞의 책, pp. 326~328.

93) 박완서, 『박완서 단편소설 전집2』, 문학동네, 1999. p. 92.

그런데 문제는 바로 그 망령이 처박혀 있는 곳이었다. 나는 그들이 있는 곳을 명치 근처에서 체증을 의식하듯 내 내부의 한가운데서 늘 의식해야만 했다. 그 느낌은 아주 고약했다. 어머니와 함께 두 죽음을 꿀꺽 삼켰을 당시의 그 몽클하기도 하고, 뭔가가 철썩 무너져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속이 뒤틀리게 메스거리기도 하던 그 고약한 느낌은 아무리 날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았다. 자업자득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삼켰으니까. 나는 망령들을 내 내부에 가뒀으니까. 나의 망령들은 언젠가는 토해내지 않으면 치유될 수 없는 체증이 되어 내 내부의 한가운데에 가로놓여 있을 수밖에 없었다. 차차 나는 더 묘한 것을 깨닫게 되었다. 내가 망령을 가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망령에게 갇힌 꼴이라는 것을, 나는 망령에게 간힘으로써 온갖 사는 즐거움, 세상 아름다움으로부터 완전히 격리당하고 있다는 것을 …… (중략) …… 나는 그들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싶었다. 삼킨 죽음을 토해내고 싶었다. …… (중략) …… 그 사이 세상도 많이 변했다. 6·25란, 우리가 겪은 수난의 시대를 보는 눈에도 많은 여유들이 생기고, 그 시대를 나의 아버지나 오빠같이 지지리도 못나게 살다 간 사람들을 보는 눈도 관대해졌다. 나는 이때다, 이때를 놓치지 말고 나도 곡을 하리라, 나도 자유로워지리라 마음먹었다. 나의 곡의 방법이란 우선 숨겼던 것을 털어놓는 일이었다 …… (중략) …… 나는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그 이야길 시켰다. 실상은 말야, 6·25때 말야, 우리 아버진 말야, 우리 오빠 말야, 오래 묵은 체증을 토하듯이 이야길 시켰다.⁹⁴⁾

이때 토해낸다는 것은 자신이 받아들였던 상징적 질서의 억압으로부터, 체증과 메스거림의 소외상태로부터 탈피하고자 하는 상징적 행위이다. 「나목」의 경아는 어머니의 욕망에 의한 소외 상태 속에서 지금까지의 자신과는 다른 새로운 자신을 만나고자 한다.

나는 모든 의상을 벗고 싶었다. 훨훨 훨훨 의상을 하나하나 벗어서 발길로 시원스럽게 차 던지고 싶었다. 쾌적한 실내 온도 때문만은 아니었다. 나는 지금 밖의 어디쯤을 서성대고 있어도 역시 옷을 벗고 싶었을 게 틀림없다. 그렇다. 나는 지금 경서 호텔로 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조에 의해 옷이 벗겨지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틀림없이 내 의상을

94) 앞의 책, pp. 90~91

벗길 것이다. 동시에 여러 겹의 터부도 누더기처럼 벗어던져줄 게다.
 …… (중략) …… 나는 그를 통해 수많은 군더더기의 나를 벗기를 원하고 있었다. 때로는 나를 찢고, 때로는 내 뒤에 숨고 내 뜻과는 상관없이 제 나름으로 요변하는 여러 개의 나를 벗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조의 도움으로 나는 그럴 수 있으리라 믿었다. 그는 틀림없이 진짜 나를 보여줄 것이다. 그를 통해 나는 내 영육의 적나라한 모습을 보고 싶었다.
 …… (중략) …… 조는 내 육신의 의상을 벗기고 나는 그를 통해 영혼의 남루를 벗기를 꾀하고 있었다.⁹⁵⁾

「나목」에서 경아는 자신을 소외시키는 가족의 공간에서 벗어나 새로운 가족을 이루는 것으로 주체로서 서게 되는 모습이 그려진다. 경아가 어머니의 욕망으로부터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가족 안에서 사고하고 생활하는 것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가족으로부터 분리된 주체를 따로 갖고 있지 못한 것이다.

여기까지의 내 회상에는 <나>가 없다. <우리>가 있을 뿐이다. 특별히 나라는 개체가 필요 없는 가족이란 <우리>를 통해서 사고하고 우리의 애환이 곧 나의 애환이었다.⁹⁶⁾

「넌 말귀가 어둡구나, 넌 우선 너의 어머니로부터, 그 다음은 이 음산한 고가로부터 자유로져야 돼」 「네?」 나는 흠칫 놀라면서 소스라쳤다.
 「우선 너의 어머니로부터 자유로워지라구」 「날더러 어찌라는 거죠?」
 「너의 어머니 이미 이 고가의 일부야. 그것이 그분의 가장 편한 처신이라면 우린들 어찌겠니? 그렇지만 너까지 이 고가의 일부이기에는 너는 너무도 젊고 발랄하다. 그러니 어머니에 대한 의무에 너를 얹매지 말란 말이다.」⁹⁷⁾

경아는 어머니의 욕망으로 인해 억압을 받아 소외감을 느끼고, 옥희도씨를 의지하며 추위에서 벗어 내려한다.

95) 박완서, 『나목』, 세계사, 1994, pp. 206~207.

96) 위의 책, p. 220.

97) 앞의 책, p. 134.

여자와 남자가 이루는 풍경, 거기엔 적어도 출지 않은 무엇이 있었다. 저들도 출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랑을 할지도 모른다. 어찌면 나도 추운 김에 아쉬운 대로 옆에 있는 옥희도 씨라도 좋아해볼까 하는 똥판지같은 생각을 하느라 별로 무섭다는 생각도 없이 어두운 길목을 지났다.⁹⁸⁾

그러나 경아가 옥희도를 사랑하게 된 것 역시 소외된 욕망이라고 할 수 있다. 함께 미래를 설계할 수 없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된 것은, 어머니의 욕망을 내면화한 결과이다. 소외된 상황에서 경아는 미래가 없는 사람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경아, 경아는 나로부터 놓여나야 돼. 경아는 나를 사랑한 게 아냐. 나를 통해 아버지와 오빠를 환상하고 있었던 것뿐이야. 이제 그 환상으로부터 자유로워져 봐 응? 용감히 혼자가 되는 거야. 용감한 고아가 돼봐. 경아라면 할 수 있어. 자기가 혼자라는 사실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여. 떳떳하고 용감한 고아로서 모든 것을 다시 시작해봐. 사랑도 꿈도 다시 시작해 봐」⁹⁹⁾

경아는 주위의 격려로 인해 어머니로부터 벗어나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되어간다.

그렇지 나는 결코 나를 가엾게 내버려 둘 수는 없지. 나는 내가 조금씩 소중스러워졌다. 소중한 나를 배고프게 내버려둘 수는 더군다나 없었다. 발딱 일어나 부엌으로 나갔다. 그리고 어머니가 눈치 채지 않게 소리를 죽여 가며 밥상을 챙겼다.¹⁰⁰⁾

그리고 경아는 억압되어 있던 외상의 순간, 즉 어머니의 “어찌면 하늘도 무심하시지, 아들들은 몽땅 잡아가지고 계집애만 남겨 놓으셨노”¹⁰¹⁾라는 말에서 삶과 죽음사이를 오고 갈 수밖에 없었으나, 어머니

98) 위의 책, p. 28.

99) 위의 책, p. 273.

100) 위의 책, p. 141.

101) 위의 책, p. 230.

로부터 분리되어 새로운 생활을 한다. 결국 경아는 집으로부터 탈출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소외시키는 어머니의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에서는 가족애의 허상을 고발하고, 언니 수지의 모성을 회복하는 모습을 통해 용서와 구원을 얻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언니 수지는 어렸을 때 동생 오목이를 계획적으로 내다버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이기심 때문에 여동생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동생을 찾지 않는다. 동생의 어려운 환경을 알면서도 외면한 수지는 동생의 임종을 앞두고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이 이기임을 느낀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지 뭐야」 수지는 속으로 이렇게 중얼대며 마치 그 아이들이 그 앞에 있는 양 허둥지둥 영란의 시선을 피해 그 아이들을 치마폭 가득, 품속 가득 껴안았다. 마음속으로 껴안은 그 애들의 체온은 생생하게 따뜻했고 가슴이 찢히도록 사랑스러웠다. 남의 자식을 그렇게 전한 마음으로 안아보긴 처음이었다. 영란의 시선을 그 아이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고 느낀 순간부터 수지는 더 이상 그 아이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속일 수가 없었다. 사랑하고 예뻐하고 책임까지 지고 싶은 마음은 아직도 좀 생소했지만 이기의 껍질로 더 이상 싸놓을 수 없을 만큼 싱싱하고 힘센 용트림을 하고 있었다. 그 계집애들을 지겨워한 것조차 사랑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친정집에다 다섯 아이 중 몇을 덜기는커녕 행여나 하나라도 놓칠세라 치마폭 가득 품속 가득 껴안고 수지는 병원으로 달음질쳤다. 더 늦기 전에 오목이에게 자신의 모습을 자랑하고 싶었다. 용서를 빌기 전에 자랑 먼저 하고 싶었다. 베풀어진 은총처럼 마음속의 다섯 아이가 그녀를 기쁨으로 가득 채웠다.¹⁰²⁾

동생의 다섯 아이를 자신이 모두 맡기로 결심하면서 수지는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차오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를 통해 이기의 늪으로부터

102)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세계사, 1994, p. 528.

터 구원을 얻게 된다.

박완서가 그리고 있는 모성은 자신이 낳은 아이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었다. 그의 모성은 자식에 대한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선을 넘어 자신의 아이에게서 어머니로 나타나기도 하고 남의 아이에 대한 모성적인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그러한 그의 작품들에 나타난 자전적 글쓰기를 통해서 그의 정신적인 외상은 조금씩 치유되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에서 이산가족이 생겨난 근본적인 원인이 바로 전쟁이며 전쟁으로 인해서 생겨난 이산가족의 재결합이 진정으로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회구조적인 측면에서 먼저 해결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박완서는 전쟁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암울했던 시대를 문학의 소재로 삼았다. 특히 글쓰기를 통해 자신이 체험과 내면의 상처를 드러내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상처를 치유하고 성숙으로 나가는 글쓰기를 하고 있다.

『나목』에서는 어머니와 딸 사이를 단절된 관계로 만들 정도로 짙은 상흔인 오빠의 죽음이 남긴 상처와 어머니와의 단절된 관계에서 탈출하고자 하는 주인공의 욕망은 끊임없이 누군가와 얘기하는 것이다.

『엄마의 말뚝 2』에서는 개별적인 치유방식으로 다스려왔던 상처에 대해 어머니의 수술을 계기로 고통을 경험하면서 피해자인 어머니와 딸은 갈등을 겪는다. 그 상태는 『엄마의 말뚝 3』에 오면서 어머니의 죽음을 계기로 딸은 어머니와 자신이 안고 있었던 상처로부터 완전한 치유가 이루어진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개인적 차원에서 분단극복의지가 사회와 연결되면서 현실비판을 통한 진정한 통일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작품은 박완서가 이런 시대적 상황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으로 분단과 이산이라는 상처 치유의 문제를 사회적 인식으로 확대시킨 작품이다. 표

면적으로는 6·25전쟁으로 인해 가족이 해체될 수밖에 없는 시대적 상황과 이산가족들이 다시 결합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작가는 작품의 심층에서 이산가족을 만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으로 인간의 이기심과 허위의식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V. 결론

박완서는 한국전쟁을 직접 겪으면서 전쟁을 배경으로 6·25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이산 문제를 다루어 오고 있다. 박완서 소설의 배경이었던 6·25는 그의 체험만이 아니라 그의 소설을 이해하는 중요한 기본이 된다. 박완서의 문학은 분단이라는 특수한 현실 상황에서의 개인의 삶을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반세기가 넘도록 우리 민족 모두에게 남긴 아물지 않은 상처와 피해의식을 통해서 분단현실을 비판하고 있다. 여전히 민족의 커다란 정신적 상처인 6·25전쟁은 여러 작가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형상화되어 왔는데, 박완서의 경우 6·25를 체험하면서 전쟁과 가족의 문제를 다룬 소설을 통해 상처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다양한 주제로 폭넓은 소설 세계와 6·25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이산문제를 주로 다루어 왔다.

전쟁 배경이 잘 드러난 그의 작품 『엄마의 말뚝』 연작, 『나목』, 『목마른 계절』,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등을 중심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이에 본고는 전쟁이라는 특수한 현실에서 우리 민족이 겪어야 했던 고통과 상처가 작품 속 주인공들을 통해 어떤 방식으로 반영되고 극복되는지를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의 형상화로 고찰하였다.

『나목』은 박완서의 전쟁 체험에 대한 상처와 피해의식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작품이다. 『나목』은 박완서 문학의 출발점이자 구심점

인 작품이며, 작가의 6·25전쟁 체험이 소설화한 작품이다. 6·25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작중 인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시키면서 전쟁으로 황폐화된 삶의 모습을 고발했다. 이 작품은 6·25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상실한 어머니와 경아,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된 화가 옥희도씨의 대립관계를 통해서 전쟁이 가져다준 황폐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6·25 전쟁이라는 시대적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옥희도라는 미술가를 통해 전쟁의 삭막함 속에서 고목으로 보이던 나무가 안정된 상황에서는 나목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전쟁 상흔으로 많은 사람들을 암담하게 했던 시절에 인간다운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 작가의식의 반영이다.

6·25전쟁이 가족상잔의 비극만이 아닌 인간을 비인간으로 만드는 정신적인 혼란 상황임을 주인공 하진과 하열을 통해 비판하는 『목마른 계절』은 작가의 가족사적 체험이 그대로 반영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전쟁 상황으로 인한 생존의 문제를 대립적으로 다루면서 이데올로기의 허위성과 관념성을 비판한다. 이런 비판과 부정을 통해 전쟁 상황 하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얼마나 절실했는가를 보여주었다. 또한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인간다움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전쟁 상황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이 작품은 『나목』에서 회상의 인물로 처리되었던 오빠의 죽음 모티프가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라는 모티프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다.

박완서의 초기작들이 개인적 차원에 머물렀다는 한계는 7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변모되기 시작했으며, 80년 초기에는 개인적 차원에만 머물렀던 전쟁 체험을 확산시켜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인다. 그 대표적인 작품이 『엄마의 말뚝 2, 3』과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이다.

『엄마의 말뚝 2, 3』은 6·25전쟁으로 인한 개인적이 민족적인 고통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전쟁의 폭력성이 가져온 혈육의 죽음이라는 상처를 지닌 모녀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분단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나타낸다. 또한 전쟁의 상처와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이를 분단과 이산이라는 사회와 연결시키면서 분단에 맞서려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분단극복의지가 형상화되고 있다. 이것은 전쟁의 후유증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굴절되어 나타나는가를 한 가족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분단과 이산문제를 사회와 연결시켜 다룬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이전의 작품에서 끊임없이 보여주었던 오빠의 죽음과 모녀의 가족사적 모티프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회적 차원에서 분단과 이산문제를 보았다.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수지와 오목이를 통해 이산가족들의 헤어짐과 재결합을 소재로 하고 있으나 이면적으로는 중산층과 하층민의 대립적 상황을 비판하면서 가진 자들의 의도적인 회피 때문에 이산가족들의 진정한 화합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면에서 수지의 이중적인 성격을 중심으로 인간의 이기심과 허위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런 주인공의 이기심은 사회의 계층과 계층간의 단절을 의미하며, 단절이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한 단면을 드러내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들이 허위와 위선에서 자유롭게 벗어날 수 있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는 시골 마을의 논픽션 작가가 복원하고자 했던 정치현실과 작중화자인 작가가 복원하고자 했던 해금작가의 실상이 모두 그 가족들에 의해서 거부되는 현실을 그리고 있다. 박완서는 분단을 주제로 하는 그의 작품에서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사실적으로 그려내면서 그것을 통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비판의식을 가지고 날카롭게 바라보고 있다. 이상과 같이 6·25전쟁으로 인해 분단가족들에게서 나타나는 피해의식들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박완서는 등단 이후 여러 작품들에서 6·25전쟁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 의식과 상처, 분단과 이산문제를 자신의 체험과 연결시켜서 소설화하였

다. 이러한 박완서의 전쟁체험의 소설적 형상화는 체험의 한계 안에 갇히는 소설 쓰기를 극복하고 그가 체험한 역사적 사실을 소설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다. 이는 이후에 사회 제반에 대한 비판의식과 중산계층의 허위의식 비판, 결혼제도의 비합리성 고발, 가부장제의 여성 정체성확립 등으로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다.

박완서는 한국전쟁을 직접 겪으면서 전쟁을 배경으로 6·25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이산문제를 다루어 오고 있다. 『나무』은 박완서 문학의 출발점이자 구심점인 작품이며, 작가의 6·25전쟁체험을 소설화한 작품이다. 6·25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을 작중 인물들의 삶에 직접적으로 관여시키면서 전쟁으로 황폐화된 삶의 모습을 고발하고 있다. 이 작품은 6·25전쟁으로 인해 가족을 상실한 어머니와 경아, 그리고 전쟁으로 인해 그림을 그릴 수 없게 된 화가 옥희도의 대립관계를 통해서 전쟁이 가져다준 황폐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특히 6·25전쟁이라는 시대적 아픔을 예술로 승화시킨 옥희도라는 미술가를 통해 전쟁의 삭막함 속에서 고목으로 보이던 나무가 안정된 상황에서는 나목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것은 전쟁 상흔으로 많은 사람들을 암담하게 했던 시절에 인간다운 가치를 구현하고자 한 작가의식의 반영이다.

6·25전쟁이 가족상잔의 비극만이 아닌 인간을 비인간으로 만드는 정신적인 혼란 상황임을 주인공 하진과 하열을 통해 비판하는 『목마른 계절』은 작가의 가족사적 체험이 그대로 반영된 작품이다. 이 작품에서 작가는 이데올로기의 문제와 전쟁 상황으로 인한 생존의 문제를 대립적으로 다루면서 이데올로기의 허위성과 관념성을 비판한다. 이런 비판과 부정을 통해 전쟁 상황 하에서 살아남아야 하는 생존의 문제가 얼마나 절실했는가를 보여주었다. 또한 등장인물들을 중심으로 인간다움을 상실할 수밖에 없는 전쟁 상황의 모순을 지적하고 있다.

박완서의 초기작들이 개인적 차원에 머물렀다는 한계는 7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변모되기 시작했으며, 80년 초기에는 개인적 차원에만 머

물렸던 전쟁 체험을 확산시켜 사회적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대표적인 작품이 『엄마의 말뚝 2, 3』과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이다.

『엄마의 말뚝2, 3』은 6·25전쟁으로 인한 개인적이 민족적인 고통을 그리고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전쟁의 폭력성이 가져온 혈육의 죽음이라는 상처를 지닌 모녀의 유대관계를 통해서 분단 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나타낸다. 또한 전쟁의 상처와 피해의식을 극복하고, 이를 분단과 이산이라는 사회와 연결지으면서 이를 도전적으로 극복하여 분단에 맞서려는 어머니의 모습에서 분단극복의지가 형상화되고 있다. 이것은 전쟁의 후유증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어떻게 굴절되어 나타나는가를 한 가족을 통해 보여주는 것이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는 분단과 이산문제를 사회와 연결시켜 다룬 작품이다. 이 작품은 이전의 작품에서 끊임없이 보여주었던 오빠의 죽음과 모녀의 가족사적 모티프에서 완전히 벗어나 사회적 차원에서 분단과 이산문제를 보았다. 이 작품은 표면적으로는 수지와 오목이를 통해 이산가족들의 헤어짐과 재결합을 소재로 하고 있으나, 이면적으로는 중산층과 하층민의 대립적 상황을 비판하면서 가진 자들의 의도적인 회피 때문에 이산가족들의 진정한 화합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이후 사회 제반에 대한 비판의식과 중산계층의 허위의식 비판, 결혼제도의 비합리성 고발, 가부장제의 여성 정체성확립 등으로 다양하게 그려지고 있다.

박완서는 등단이후 여러 작품들에서 6·25전쟁으로 인한 개인적 피해의식과 상처, 분단과 이산문제를 자신의 체험과 연결시켜서 소설화하였다. 이러한 박완서의 전쟁체험의 소설적 형상화는 체험의 한계 안에 갇히는 것을 소설 쓰기로 극복하고 그가 체험한 역사적 사실들을 소설적으로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나아가고 있다.

■ 참고문헌

I. 자료

- 박완서,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세계사, 1994.
——, 『그 산이 정말 거기 있었을까』, 웅진출판, 1995.
——,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 웅진출판, 1996.
——, 『나목』, 세계사, 1994.
——, 『목마른 계절』, 세계사, 1994.
——, 『복원되지 못한 것들을 위하여』, 문학과 지성사, 1991.
——, 『엄마의 말뚝』, 세계사, 1994.

II. 연구논저

1. 단행본

- 강만길, 『분단시대의 역사인식』, 창작과 비평사, 1979.
강인숙,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도시와 모성성』, 둥지, 1997.
구상 외, 『6·25분단 문학의 민족 동질성 추구와 분단 극복의지』, 한국문학, 1986.
구수경, 『한국현대소설과 시점』, 아세아문화사, 1996.
구인환 외, 『한국 전후문학』, 삼지원, 1995.
권영민, 『분단문학의 역사적 전개』, 현대소설사, 1992.
——, 『박완서론』, 삼인행, 1991.
——, 『한국현대문학사 1945-1990』, 민음사, 1993.
김경수, 『현대소설의 유형』, 솔, 1997.

- 김경연 외,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세계』, 창작과 비평사, 1988.
- 김승환·신범순, 『분단문학비평』, 청하, 1987.
- 김윤식, 『박완서와 박수근-나목에 이르는 길』, 일지사, 1988.
- , 『우리 문학의 넓이와 깊이』, 서지현, 1979.
- , 『박완서와 박수근』, 일지사, 1998.
- 김윤식·정호웅 공저, 『한국 소설사』, 예하출판사, 1993.
- 김철성, 『역사 앞에서』, 창작과 비평사, 1993.
- 김치수, 『역사적 상처와 현실적 고통』, 문학과지성사, 1991.
- 박동규, 『현대한국소설의 성격 연구』, 문학세계사, 1981.
- 박완서·권영민·호원숙, 『박완서 문학앨범』, 웅진출판사, 1992.
- 변형윤 외, 『분단시대와 한국사회』, 까치, 1986.
- 송하춘·이남호, 『1950년대 소설가들』, 나남, 1994.
- 엄섭일 『한국전쟁(상)』, 국방군사 연구소, 1995.
- 우한용, 『한국현대소설담론 연구』, 삼지원, 1990.
- 유임하, 『분단현실과 서사적 상상력—한국현대소설의 분단인식연구』, 태학사, 1998.
- 이경호·권명아, 『박완서 문학 길 찾기』, 세계사, 2000.
- 이기윤, 『전쟁과 인간』, 한샘, 1992.
- 이동하, 『한국 대중 소설의 수준』, 정음사, 1984
- 이재선, 『한국현대소설사 1945-1990』, 믿음사, 1997.
- , 『한국현대소설사』, 삼지원, 1998.
- , 『한국의 전후문학』, 한국현대문학연구회, 1991.
- 이태동 편, 『박완서』, 서강대학교 출판부, 1998.
- 임현영, 『문학과 이데올로기』, 실천문학사, 1983.
- , 『해방 40년의 문학』, 믿음사, 1985.

2. 연구논문

- 김기숙, 「박완서 소설연구-현실반영을 중심으로 한 작가의식 고찰」,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4.
- 김민옥, 「박완서의 전쟁체험 소설연구」,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김병희, 「한국 현대 성장소설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0.
- 김보영, 「박완서 소설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은정, 「박완서 소설연구」,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 김희진, 「박완서 소설연구」, 중앙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이기윤, 「1950년대 한국소설의 전쟁체험 연구」,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89.
- 이광민, 「박완서 소설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경미, 「박완서 소설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경식, 「박완서 소설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6.
- 이봉일, 「전후소설과 이데올로기의 상관성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0.
- 이상덕, 「한국 전후 소설에 나타난 갈등양상」, 인하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89.
- 이상원, 「1950년대 한국 전후소설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3.
- 이수영,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6·25전쟁의 수용양상 연구」, 대구 카톨릭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선미, 「박완서 소설의 서술성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은경, 「박완서 단편소설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이정희, 「오정희·박완서의 근대성과 젠더의식 비교연구」, 경희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1.
- 이형진, 「박완서 소설에 나타난 ‘가족’의 의미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 이흥진, 「박완서 초기 장편소설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5.
- 윤철현, 「박완서 소설연구」, 부산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1.
- 장문숙, 「박완서 소설의 근대적 여성성」, 충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전창호, 「여성의 글쓰기와 자아발견의 서사구조」, 한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2.
- 조윤희, 「박완서의 페미니즘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 지지연, 「박완서 소설연구」, 경희대학교 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최유정, 「박완서의 세태소설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한정자, 「박완서 소설연구」,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허한순, 「박완서 단편소설연구」, 경원대 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3. 단평·기타

- 강금숙, 「박완서 소설의 공간에 나타난 여성의식」, 『이화어문논집』 10집, 이화여대 한국어문학연구소, 1989, 3.
- 고정희, 「한국 여성문학의 흐름-시와 소설을 중심으로」, 『열린사회, 자율적 여성』, 평민사, 1986.
- 구인환, 「상흔적 현실과 치유적 지향」, 한국문학평론가협회 편, 『분

- 단현실과 비평문학』, 상록, 1986.
- 권명아, 「박완서 문학연구-억척모성의 이중성과 딸의 세계의 의미를 중심으로」, 『작가세계』, 1994, 겨울.
- 김경수, 「여성 성장소설의 제의적 국면-『바람의 뒹』, 『나목』, 『사다리가 놓인 창』을 중심으로」, 『페미니즘과 문학비평』, 고려원, 1994.
- 김경연 외, 「여성해방의 시각에서 본 박완서의 작품세계」, 『여성』 2집, 창작사, 1989.
- 김영민, 「상처의 인식과 치유」, 『월간문학』, 1991, 7.
- 김윤식, 「박완서론-천의무봉과 대중성의 근거」, 『80년대 우리 문학의 이해』, 서울대출판부, 1989.
- , 「박완서론-기억과 묘사」, 『작가와와의 대화』, 문학동네, 1996.
- , 「박완서론-망설임 없는 의식」, 『우리문학의 넓이와 깊이』, 서래현, 1979.
- 김우중, 「나목의 아픔과 그 영광」, 『신한국문체작가선집 6』, 어문각, 1978.
- , 「속물적 삶의 비판」, 『한국현대문학선집 6』, 어문각, 1978.
- 김주연, 「순응과 탈출」, 『변동사회와 작가』, 문학과지성사, 1979.
- , 「구원과 소설」, 『문학을 넘어서』, 문학과지성사, 1979.
- 박완서, 「내 문학의 나무에 돋은 한 작은 가장귀」, 『사상문예운동』, 도서 출판 풀빛, 1991.
- 백낙청, 「80년대 소설의 분단극복의식」, 『분단문제와 한국사회』, 까치, 1985.
- 성민엽, 「박완서의 추구」, 『고통의 언어, 삶의 언어』, 한마당, 1986.
- 신수정, 「증언과 기록에의 소명-박완서론」, 『오늘의 문예비평』, 1998. 3.
- 신철하, 「기억·음화·미망-박완서의 『나목』에 대한 수상」,

- 『동서문학』, 1983. 3.
- 안숙원, 「『엄마의 말뚝 1·2』 연작소설과 모녀관계의 은유/환유 체계」, 『한국문학과 모성성』, 태학사, 1998.
- 염무웅, 「사회적 허위에 대한 인생론적 고발」, 『세계의 문학』, 1977, 여름.
- 오생근, 「한국 대중문학의 전개」, 『삶을 위한 비평』, 문학과 지성사, 1988.
- 오세은, 「박완서 소설 속의 ‘어머니와 딸’ 모티프」, 『한국여성문학비평론』, 개문사, 1995.
- 유종호, 「고단한 세월 속의 젊음과 중년」, 『창작과 비평』, 1977, 가을호.
- , 「불가능한 행복의 질서-박완서의 소설」, 『동시대의 시와 진실』, 민음사, 1982.
- 윤병로, 「분단극복을 위한 민족적 정서로 승화」, 『박완서 문학상 수상 작품집』, 훈민정음, 1993.
- 이남호, 「말뚝의 사회적 의미」, 『이상 문학상 수상작가 대표 작품선』, 문학사상사, 1989.
- 이동하, 「한국 대중소설의 수준」, 『해방 40년의 문학 4』, 민음사, 1985.
- , 「분단소설의 세 단계」, 『분단문학비평』, 청과, 1987.
- 이선미, 「엄마와 딸이 겪는 성장의 역사, 『엄마의 말뚝』론」, 『우리 시대의 소설 우리시대의 작가』, 계몽사, 1997.
- 이정숙, 「복원의 거부와 은폐, 사회소설의 한 양상 연구」, 『한성어문학』, 2003, 8.
- 전영태, 「6·25와 한국소설의 재발견」, 『한국문학』, 1985, 6.
- , 「6·25와 분단시대의 소설」, 『한국문학』, 1986, 6.
- 전순진, 「천의무봉과 작위적 상황설정」, 『비평문학』 8호, 1994.

- 정규웅, 「목마른 계절의 세계」, 『제삼세대한국문학17-박완서』, 삼성출판사, 1983.
- 정호웅, 「상처의 두 가지 치유방식-박완서 문학의 6·25 체험 수용에 대하여」, 『작가 세계』, 1991, 봄.
- 채호석, 「억눌린 영혼의 상처 덧들이기-박완서의 소설세계」, 문학사상, 2000, 7.

■ ABSTRACT

Harm Consciousness Study of War-Experience and family in Park Wan Seo's Novel

- in view of lost a question -

Lee Moon-Ae

Major in Morden Literature

Dept. of Korea langure and Literature

Graduate School of Hansung university

Korea is only remained as a divided nation post 2nd world war. The relation with south and north korea has been varied and developed rapidly even though there are many unsolved problem, at this time it is significant to remember the experience of Korean war caused divided nation.

Many Korean writers have represented various mental blow of korean people, especially Park Wan Seo was unique writer represented suffering mind of war-experienced korean people in her novels which express korean war and issue of family from her experience of Korean war.

Park Wan Seo began writing of novel and essay, the motive of her writing is that she has a desire to talk. Her novels and essay has shown injured mind in self-inside repeatedly, and has cured remained scar of korean war through an literary appearance. Therefore her literature reflect suffered life from korean war and divided nation. She has left many novels which represent herself experience of korean war in 『Naked Tree』 (1976), 『Thirst for Season』 (1978), 『Mother's Stake』 (1982), 『Warmed Winter』

(1983).

Park Wan Seo, a generation experienced Korean war, has unforgettable cruel remembrance. She writes autobiographical literature which represents a progress of curing of suffered life through her memory of experience. That means that Park Wan Seo has still unhealed scar and remains in her mind deeply.

Park Wan Seo's experiences are reconstructed by her remembrance. Her suffer was inverted to self-inside, by her writing work for self relief herself's suffer was cured.

When all situation suffering herself was reconciled, after all she can be free from suffer by the progress.

The reason of Park Wan Seo's writing work is to testify her experience of Korea war. She came under the influence of her mother who was a good talker. She has the belief that novel is talking in accordance with her mother's traditional culture. As if her mother was going to get perfect efficacy through talking she also tries to get curing herself's suffer and scar through writing and talking about mother's and herself's surroundings experienced Korean War and the brother's death.

Therefore this paper is to observe progress of curing scar and relief herself through writing various novel in connection with Korean War.

Key words : Consciousness, War, Experience, family, motive, experience, testify, writing, autobiographical, relief